

6.15 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39호 (3월 15일~3월21일)

주석님 노작 -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결성에 대하여

이회창,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북핵위협? 적반하장!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돌을 기념하며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오늘에 다시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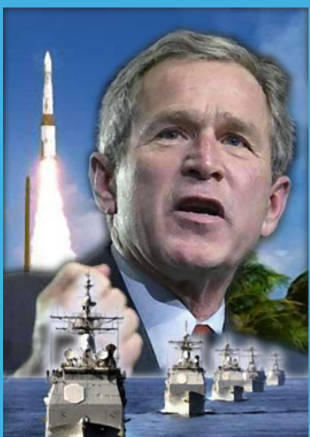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이회창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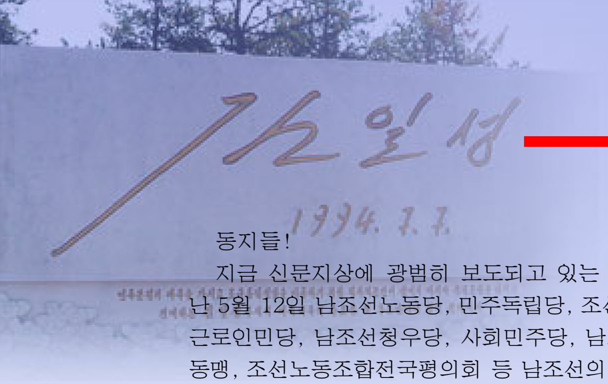
제38호 (3.15~3.21)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에 대하여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한 보고
1949년 6월 11일



동지들!

지금 신문지상에 광범히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 남조선노동당, 민주독립당, 조선인민공화당, 근로인민당, 남조선청우당, 사회민주당, 남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등 남조선의 8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 것을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에 제의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문제가 적절한 시기에 제기되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장하여 오던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하고 그 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사업을 민전을 통하여 진행하여왔습니다.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는 북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들의 동의 밑에 5월 25일 평양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자는 것을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들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에 참가할 대표들을 평양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5월 25일에 평양에서는 남북조선의 51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 68명의 참가 밑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사업내용을 토의하였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망라되려는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임의의 시각에 준비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에 뒤이어 지난 6월 7일에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를 오는 6월 25일에 평양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들에 통고하였습니다. 지금 남북조선의 53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대회 준비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왜 결성하여야 하겠습니까?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지 4년이 가까워 오지만 우리 나라는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38선을 경계로 하여 양단 된 채로 있습니다.

국토의 양단은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과 우리 조국의 장래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못지 않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 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민족분열정책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에 상륙하자 군정을 선포하고 애국적인 민주역량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친일파, 민족반역자들로 식민지통치의 지반을 닦기에 광분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소 미 공동위원회사업을 고의적으로 파탄시키고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상정시켰으며 자기들의 거수 기를 발동하여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였습니다. 미제는 전체 조선인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감시 밑에 남조선에서 ≪단선≫을 강행하고 이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주구집단으로 소위 ≪대한민국정부≫를 조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철두철미 미제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괴뢰정부로서 조작된 이래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공공연히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요즘 이승만 괴뢰도당은 미국과 소위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미명하에 조병옥을 미국에 파견하여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팔아먹기 위한 밀담을 벌이는 한편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걸하고 있습니다.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의 야만적 통치 밑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 박탈당하고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미제의 조종 밑에 이승만 괴뢰도당은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애국적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투옥,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괴뢰도당의 탄압책동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은 지하로 들어갔으며 민주주의적 출판물들과 출판기관들은 강제로 폐간, 폐쇄 당하였습니다. 이승만 괴뢰도당은 1948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13만 6,360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였으며 작년 4월 3일부터 금년 3월말까지 근 1년 동안에 제주도에서만도 3만여 명의 인민들을 학살하고 2만여 호의 농가와 295개의 부락을 불살랐습니다. 남조선 민주역량과 인민들에 대한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의 탄압과 학살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횡포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민족경제는 여지없이 파탄되고 인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경제명맥을 틀어쥐고 원료와 자원을 마음대로 약탈해가고 있습니다. 지어 그들은 ≪적산불하≫라는 미명하에 남조선의 공장, 기업소들을 마구 파괴하며 공장설비들을 뜯어가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공업생산은 계속 저하되고 물가는 폭등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있는 실업자와 파산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곡창지대로 불리 워 오던 남조선농촌은 여지없이 황폐화되고 농민들은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에 얽매여 여전히 지주의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전에 비하여 남조선의 경지면적은 수십만 정보나 감소되고 알곡수확고는 80%이하로 저하되었습니다. 남조선농민들은 고률의 소작료와 강제공출과 강제양곡수매로 인하여 살래야 살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과 착취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조종 밑에 이승만 괴뢰도당은 청장년들을 강제 징집하여 괴뢰군을 증강하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군수물자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늘어나는 군사비를 인민들에게 들 씌워 그들의 생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결코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도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에는 조국을 통일하며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복구하고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북반부에 마련된 경제토대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인공적 장

벽인 38선 때문에 남조선경제를 복구하며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원하는데 이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이승만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정세는 우리 앞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미군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아내며 매국노 이승만 괴뢰도당을 타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구원하여야 할 역사적 과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모든 애국역량을 총집결하여야 하며 전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로 굳게 단결하면 강한 민족이 되고 분열하면 망국노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능히 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민족 앞에 나선 중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에 대한 파쇼적 폭압과 식민지적 약탈을 강화하던 시기에 우리는 항일의 기치 밑에 각계각층 인민들을 묶어 세워 반일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숙청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과업도 나라와 민주를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 이승만 도당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 앞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비록 정견과 신앙, 사상과 주의주장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 민족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서로 이해하고 단결할 수 있으며 단결하여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남북조선의 광범한 애국역량을 묶어 세우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애국적 인민들, 특히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하나의 민주주의적 역량으로 총집결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 유일한 합법적 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조건에서 남북조선의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총집결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문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것은 각계각층 인민들의 숙망에 부합됩니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조국의 완전독립을 갈망하고 있으며 또 조국의 통일이 반드시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에 대한 이러한 갈망과 확신 밑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에 수십 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계속 대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성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전 조선의 애국적인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통일전선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결성은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구국대책으로 되는 동시에 우리 인민의 단결된 위력의 뚜렷한 시위로 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국토완정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자원성의 원칙에서 망라되는 조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당, 사회단체든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부터 자기의 독자적인 활동에서 간섭을 받거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사업을 좌지우지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망라된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며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조국의 통일과 완전독립을 달성하며 일제잔재와 봉건잔재를 숙청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부흥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자기의 투쟁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이승만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는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미제의 침략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전 민족을 조직 동원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승만 괴뢰도당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에 의하여 체포 구금된 애국적 민주인사들을 석방시키며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표하는 정권입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공화국정부를 지지하여야 하며 그의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미 이룩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남조선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하는 사업에서 뿐 아니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결성된 다음에도 그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놀아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내에서 자기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다른 정당, 사회단체들과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며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에 망라되어 사업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의 역할을 높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강령과 선언문이 우리 인민의 이익에 맞게 작성되며 결성대회준비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결성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업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을 결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매우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준비위원회 결정대로 오는 6월 25일에 개최되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대회에 우리 당의 대표를 80명 선거하여 파견할 것을 제의합니다.

1.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다

≪세기와 더불어≫ 제5권 제13장 백두산으로



...

나는 왕가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당신과 나는 구면이다. 당신도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도 당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만치 나는 흉금을 터놓고 당신에게 말하려고 한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군대이다. 우리는 우리를 해치지 않는 한 위만군경들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의사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의 요구에 동의한다면 당신이 통솔하는 경찰대와 그 관하의 각 경찰분서들을 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화평을 제기하는 바이다. ...

이런 식으로 편지의 서두를 뗀 다음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이 파견한 공작원들이 성시나 부락들에 마음대로 드나들거나 머무를 수 있게 하라는 것, 인민혁명군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는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며 수감중인 애국자들을 당장 석방하라는 것 등의 내용으로 된 요구조건들을 제기하고 왕가대장이 이 요구조건들을 수락하는 조건에서 무송현 경내에서의 ≪치안유지≫에 되도록 혼란을 조성하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였다.

며칠 후 왕가대장으로부터 우리의 제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과 우리가 내놓은 세가지 요구조건을 전부 수락한다는 내용의 회답이 왔다.

그리하여 우리와 왕가대장 사이에는 서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일종의 비밀협약이 이루어지게 되였다. 쌍방이 서로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와 왕가대장 사이에는 얼마동안 아무런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왕가대장은 우리가 요구한대로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중지하였고 자기 관할하의 성시나 집단부락들에 우리 공작원들이나 연락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데 대하여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조선인 애국지사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도 늦추었다.

우리도 왕가대장 관할하에 있는 부대들을 습격하거나 그들의 주둔지역에서 소란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나는 ≪민생단≫ 보따리를 불태운 다음 대원들을 무기공작에 내보낼 때 무송현성 밖에 있는 다른 지방에 나가서 전투를 하고 무기도 얻어야지 현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단단히 일러주고는 하였다.

왕가는 결코 미욱한 사람이 아니었다. 지나칠만큼 영리하고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가 간도와 북만에서 어떻게 활약해왔고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우리와는 애당초 싸울 잡도리부터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무송땅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자 자기 부하들에

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고려홍군≫과는 맞서지 말라.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한다. 병력이 적다고 함부로 덮치려들지 말라.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애초에 걸지부터 말아야 한다.≫

왕가대장은 시누런 군복을 입은 우리 군대를 보면 못본척하고 멀찍이 피해가고는 하였다. 그대신 시꺼먼 복장을 한 산림부대만 보면 기를 쓰고 덤벼들었다. 1,000명도 더 되는 만순부대에 비하면 내가 직접 데리고 다니는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니였지만 왕가대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만순이네 산림부대들 뿐이었다.

사실상 왕가대장과 화평하는 조항에다 만순이네 부대에 피해와 손실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요구를 밝힌 것은 반일역량을 보존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1930년대 후반기에 와서 반일부대들의 활동은 하강선을 긋고 있었다.

구국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던 왕덕림, 당취오, 이두, 소병문 등의 부대들은 이미 산해관이나 또는 쏘련을 거쳐 관내로 퇴각해버리었고 왕전양 부대, 전신 부대와 같은 견결한 반일무장부대들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결사보국할 각오를 가지고 혈전을 거듭하다가 적들에게 괴멸당하였다.

정초 부대, 왕육진 부대와 같은 일부 부대들은 흰기를 들고 귀순하였다.

무송과 임강현경에 있는 만순휘하의 군소부대들과 자매부대들에서도 귀순자가 늘어났다. 1935년 가을에 초수탄에서는 마흥산 부대의 투항병 90여명을 환영하는 귀순식놀음까지 벌어졌다.

구국군의 나머지 역량은 작은 집단으로 분산되어 깊은 산중에 들어박혀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으며 더러는 토비로 되었다.

이런 실태는 일부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을 경시하고 지어 그것을 불필요한 것으로 보는 경향을 낳게 하였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반일연합전선에 대한 우리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왕가대장과 화평약속을 하는 한편 만순부대와 공동전선을 펼 교섭도 시작하였다.

우리 부대에는 산림부대 출신의 나이 지숙한 대원이 있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만순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 당신의 이름은 우리 혁명군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는 무송에 도착하는 즉시로 당신을 만나 통성도 하고 반만항일공동투쟁대책도 의논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인사도 나누기 전에 불미스러운 충돌사건이 빚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의 정치위원이 혁명군의 후방물자를 강탈하다가 총상당한 산림대원들을 심문한데 의하면 그들은 이미 두석달 전에 당신이 통솔하는 부대에서 도망쳐 토비로 전락된 탈주자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병사들이 마치 당신휘하의 산림부대 현역대원들을 해친 듯이 여론을 퍼뜨리는 것은 당신들과 우리들 사이의 친목을 달가와하지 않는 적들의 간계이다.

나는 양군이 오해를 풀고 불신을 해소하며 반감과 적의를 버리고 전우로, 형제로 되어 항일공동전선에 나서게 되기를 열망해마지 않는다. ...

만순은 회답을 보내지 않고 우리의 제의를 무시해버렸다. 그 침묵이 말해주고 있는 대답은 명백하였다. 그것은 당신네가 없어도 살아간다는 것이였다. 무송일대에는 만순대장이 그런 배심으로 나올만한 정황이 실지로 조성되어 있었다. 왕가대장이 우리와 약속한대로 만순부대를 비롯한 모든 반일부대들에 대한 공세를 늦추었기 때문이었다. 왕가는 형식상으로만 ≪토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냈지 실제적으로는 ≪토벌≫을 하지 않았다. 만순의 모든 군소산림부대는 후원이 없이도 숨쉬고 살아갈 만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는 오히려 산림부대의 산발적인 방해책동을 더 부추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받자 그 산발적인 가해행위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공동전선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안정을 얻었다. 왕가부대도 만순부대도 더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모처럼 얻게 된 그 안정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만강에 갔을 때에도 대영에 갔을 때에도 그곳 위만군경들과 평화교섭을 하고 불가침을 약속 받았다.

우리가 처음으로 만강에 간 것이 1936년 4월말 경이었다.

거기에는 30명 정도의 경찰대 무력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쯤되는 적을 제끼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무력행사도 하지 않고 대표를 보내어 경찰대와 담판을 하게 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을 다치지 않을테니 당신들은 우리가 이 부락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게 하겠는가? 그저 못 본 척하고 배겨있다가 훗날 상급에서 추궁하면 유격대병력이 너무 많아서 대항하지 못하고 가만있었다는 식으로 뒷처리를 할 수 있는가?

경찰대는 우리의 이런 제안에 제꺽 응해나섰다. 유격대가 자기들을 다치지 않고 담판을 걸어온 것만으로도 그들은 절을 할 지경이었다.

이동학은 보위단근처의 집옆에 기관총을 걸어놓고 사복입은 우리 기관총수들이 밤낮으로 경계근무를 서게 하였다.

그 기회에 나는 만강에서 조국광복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강회의에 제출할 문건들의 대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다. 적들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으니 일자리도 푹푹 났다.

우리는 우리와 싸우려 하지 않는 적에 대하여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였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첫시기부터 철칙으로 삼아온 우리의 대적방침이었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전기간 시종일관하게 지켜온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행동준칙이었다.

우리는 남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리기 위하여 총을 잡은 사람들이었다. 조국을 살리고 겨레를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투쟁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다. 우리의 총검은 오로지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압살하며 우리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원쑤들을 징벌하는데만 바쳐졌다.

그러므로 우리 군대의 정의로운 검은 살려둘 가치를 가진 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는 자애로운 보검이 되어준 반면에 살려둘 가치가 없는 악질적인 반항자들에게는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징벌의 검으로 되었다.

봄내 잠잠해있던 왕가대장은 무슨 충동을 받았는지 그 해 여름철에 접어들면서부터 반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다시 시작하였다. 무송현성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와 헌병대가 그에게 압력을 가한 것 같다. 반일부대병사들의 잘라진 머리가 무송거리의 전선대들에 다시 걸리게 되자 만순 휘하의 여러 산림부대들에서는 탈주병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였다. 항일구국의 이념에 투철하지 못한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산림부대의 본성이 되살아나 반일역량의 결속에 힘쓰고 있던 우리를 또다시 괴롭히었다. 왕가의 ≪토벌≫을 멈춰세우지 않으면 만순부대는 와해의 운명을 면할 수 없었다.

나는 왕가대장에게 두 번째로 되는 편지를 보냈다.

... 우리는 당신이 수하의 경찰대를 동원하여 산림부대들에 대한 ≪토벌≫을 재개하였다는 불쾌한 통보를 받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와의 협약을 저버린 것으로 된다.

나는 당신이 약속을 배반한 결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처신할 것을 권고한다.

완고하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적에게는 우리의 관용이 적용되

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

그 경고편지가 전달된지 한주일이 지나도록 왕가대장에게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만순부대에 대한 ≪토벌≫도 중단되지 않았다. 으름장을 놓으면 겁낼 줄 아느냐,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싸울테면 싸우자, 왕가대장은 아마 이런 배심이였던 것 같다.

무송현내의 여러 요충지들에는 수백명의 관동군 ≪토벌≫ 병력이 증파되어 왔다. 왕가는 전에 없이 오만방자해졌다.

7월초에 나는 왕가에게 마감으로 다시한번 더 경고를 주었다.

그 마지막 편지를 보낸지 나흘만인가 닷새만인가 회답대신 왕가부대가 다시금 대첨창 근처에 있는 만순부대의 어느 한 숙영지를 기습하였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무송현과 임강현 사이의 어느 수림지대에 머물러있을 때였다.

왕가의 행위는 나와 나의 전우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상전의 조종을 받는 괴뢰만주국의 경찰대장이 공산주의자들과의 약속에 끝까지 충실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도 중국사람이며 자기 나름의 이성이 있을것이라는데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위만군을 상대로 하여 우리가 진행해온 적군와해사업의 기초에는 그 이성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깔려 있었다. 우리가 왕가를 설복하여 불가침협약을 맺은것도 구경은 그런 믿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였다.

우리가 믿음을 준 적군의 중하층 장교들은 대부분 우리와의 약속에 충실하였다. 액목땅에서 우연히 나와 인연을 맺은 위만군 연대장도 그렇고 우리에게 ≪철군≫잡지를 계통적으로 보내오던 대포시하의 위만군 대대장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구면인 왕가는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차던지였다. 신념을 못가진자들이 가닿게 되는 종착점이란 배신밖에 없다. 왕가에게는 일제가 망하고 조중 양국 인민이 승리하게 된다는 신념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왕가대장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가 우리의 인내성있는 기대와 성의에 총질로 대답을 하는데 대해서는 분격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김산호를 불러 날쌘 싸움군을 한 30명 정도 골라가지고 10연대에 가서 그 연대대원들과 함께 왕가대장을 징벌하라는 과업을 주었다.

… 왕가대장이 녹아났다는 소문을 듣자 도처의 반일부대지휘관들은 김산호를 찾아와서 왕가의 머리를 자기들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난날 수많은 반일부대장병들의 머리를 베여 달아놓았던 왕가의 악행에 대한 앙갚음으로 그의 머리를 천하가 다 볼 수 있게 무송의 성문 높이 매달겠다는 것이였다.

나는 김산호에게 왕가의 시체를 머리칼 한오리 다치지 말고 무송현 경찰대에 가닿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우리는 왕가대장의 장례식이 요란스럽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장례식이 또한 우리 군대에 대한 소문을 더 크게 해주었다. 적들 속에서는 우리 혁명군과 맞서서는 죽음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갔다.

왕가를 징벌한 시난차 전투와 황니하자 전투에 대하여서는 한설야의 장편소설 ≪역사≫에 비교적 상세하게 취급되어있다.

왕가를 제거해버린 다음 우리는 일본군대까지 제압해놓음으로써 무송일판을 완전히 우리의 천지로 만들 작정을 하였다. 정찰병들을 파견하여 각방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중 마침 60여명의 일본군대가 무송에서 임강 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인차 매복전을 조직하였다. 그 싸움 역시 아주 통쾌하였다. 파손된 배에 실려 도망친 놈은 여라문명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몽땅 수장당하였다.

이런 싸움이 몇 번 거듭되자 무송현일대는 우리의 천지로 되었다.

그 해 여름을 우리는 대영에서 얼마동안 보냈다. 온천 옆에 천막들을 쳐놓고 지내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었다.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내오는 사업, 무송과 임강의 산림지대에 인쇄소, 재봉소, 무기수리소, 후방병원을 포함한 밀영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일을 하였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그마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적의 주둔지였다. 우리는 대영에 가자마자 적들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였다.

… 우리는 한동안 온천에서 지낼 작정이니 너희들은 그런줄 알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며 어디로 달아나지도 말라. 거기에 가만히 배겨있으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물품들을 보내주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생명과 안전은 우리들이 담보한다. …

적들은 지척에 있으면서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어디로 달아나지도 못하였다. 그대신 우리가 일러준대로 물품조달자의 역할을 고분고분 수행하였다. 우리가 지하족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하족을 가져오고 밀가루를 실어오라면 밀가루를 실어왔다.

만순이 나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왕가대장을 격멸한 데 대한 축하와 문안인사를 보내온 것이 바로 그 무렵이였다. 얼마 후에는 만순영감 자신이 직접 우리를 찾아서 대영온천지로 왔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편지도 보내고 사절도 파견하여 공동전선을 하자고 호소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응답도 보내지 않았던 도고한 늙은이가 제발로 찾아든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였다. 그때까지는 공동전선을 위해서 우리가 우사령도 찾아가고 오의성도 찾아갔지만 왕가대장을 제껴버린 다음에는 유명짜한 만순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왔다.

만순은 첫눈에도 쉰살이 훨씬 넘어보이는 사람이였다. 아편에 중독되어서인지 눈빛이 맑지 못하였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부터 앞세웠다.

≪우리 반일부대 병사대중은 모두가 한결같이 왕가놈을 없애준 김사령을 세상에 둘 도 없는 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김사령께 감사를 드리고 겸하여 사령과 형제의 의를 지니고 싶은 마음을 전하자고 찾아왔소이다. 청컨대 김사령은 내가 지난날 노망하여 섭섭하게 굴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먼길을 마다하고 찾아온 이 마음 을 너그러이 헤아려 나와 쟈잘리를 무어주었으면 합니다.≫

만순의 요청은 한동안 나를 망설이게 하였다. 나는 지난 시기 우사령이나 오의성과 공동전선을 실현할 때 제기하였던 몇가지 조건들을 들면서 그것들을 수락한다면 쟈잘리를 뭇는데 대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하였다. 그 조건이란 반일부대가 우리와 친교를 맺고 우군으로 지내야 한다는 것, 일제에게 절대로 투항귀순해서는 안된다는 것,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 우리의 공작원이나 연락원들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 우리와 정상적으로 정보교환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였다.

뜻밖에도 만순은 그 모든 조건에 대하여 기꺼이 동의해 나섰다. 그는 내가 제기하는 조건에 대하여 보충적인 설명을 가할적마다 머리를 끄덕이며 빈번히 ≪달≫자를 넣어 ≪달견≫이요, ≪달통≫이요 하면서 찬의를 표시하였다.

결국 우리는 단 몇시간 사이의 상면으로 공동전선을 맺고 우리 양군은 서로 우군이 되었다.

만순은 그 후 우리와의 언약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

왕가대장을 치고 만순을 끌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남호두 회의 이후의 조선인민혁명군의 행로에서 하나의 의의있는 사변으로 되었다. 이 사변의 의의는 비단 적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시위하였다는 거기에만 있지 않다. 무송지구에서 우리가 바친 불면불휴의 노력은 백두산지구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서 튼튼한 초석으로 되었다. 이 노력으로 하여 우리는 조중 양국 인민과 애국역량의 공동전선을 실현하는 길에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었다.

위대한 충정, 위대한 업적

김남진 / 구국전선 제472호, 주체91년 3월 21일



사람들은 지금도 마르크스와 레닌의 위업을 승계한 엥겔스나 스탈린을 뜨겁게 추억한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과 위업, 승계의 충정도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께 바치는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의 충정에는 비견할 수 없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마르크스에 대한 엥겔스의 충실성이나 레닌에 대한 스탈린의 충실성은 나에 대한 **김정일**동지의 충실성에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은 주석님과 그 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위대한 충신이시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항상 **김일성**주석님은 인류의 태양이시고 자신은 태양의 전사라고 하시면서 주석님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받드시고 주석님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수령을 근로민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정식화하여 최상의 지위에 올려 세우시였다.

그분께서는 또한 변혁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관하여 과학적으로 밝히심으로써 종래관념을 완전히 깨뜨리시였다.

종래에는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개인과 동일시한 것으로 하여 수정주의자들과 온갖 배신자들이 선대수령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거세, 약화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새



로운 정식화는 수백년을 헤아리는 공산주의운동역사에서 특기할 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정식화에 기초하시어 **김일성**주석님은 근로민중의 최고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이시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이토록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문제에서는 최대의 충정을 기울이시였다.

주석님의 시력보호를 위해 녹음문건을 만들어 올린 사실, 주석님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교대없는 보초병이 되시어 한밤을 지새우신 사실 등은 주석님께 바치시는 그분의 충정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는 단편적인 일화에 불과하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렇듯 위대한 충정으로 **김일성**주석님을 생존시나 다름없이 서거하신 후에도 영원히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게 꾸리시어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 태양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실 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김일성**주석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실데 관한 **김일성**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고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 주시였다. 그리하여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이 조국역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게 하시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또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승계발전시키시며 주석님의 혁명위업을 끗끗이 이어나가고 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명저들을 발표하시어 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였으며 자주시대의 완성된 지도사상으로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오늘 세계가 자주의 궤도,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나가고 있는 것은 **김일성**주의를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완성시킨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이론적 공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시기 위해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온 나라에 일떠 세워주시였다.

이북각지에 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는 수많은 기념비들이 건립되고 주석님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사적지들에 사적관들과 표식비, 기념비들이 새롭게 일떠선 사실만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실현해 나가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대국상이후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나는 추호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열어 놓으신 주체의 길을 따라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는 당의 기본구호를 제시하시고 주석님의 사상과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주석님의 유훈관철에로 전당과 전체 민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키시였다.

전국도처에 일떠서는 대,중,소규모발전소들과 수많은 닭공장들, 토지정리장들과 현대화된 공장들은 주석님의 유훈관철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일장군님의 이렇듯 뜨거운 충정에 떠받들려 오늘 조국통일운동에서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 3대기둥으로 정식화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분께서는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자≫를 비롯한 수많은 명저들을 발표하시어 매 시기, 매 단계에서 나서는 통일운동방략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이와 함께 정력적인 활동으로 통일운동을 진두지휘하시어 분단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 발효케 하시어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휘황한 큰길을 마련해 놓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와 정력적인 영도에 의한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역사, 태양의 불멸의 역사는 오늘도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검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주체91년 3월 13일



최근 미국출판물들의 보도에 의하면 부쉬행정부가 로씨야와 중국 그리고 우리 나라와 수리아, 리비아, 이란, 이라크 등 7개 국가를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한정핵공격≫을 위한 소형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미국은 이 나라들에 대해 상용무기로는 파괴할수 없는 지하목표에 대한 공격, 생화학무기공격에 대한 보복공격, 예측할수 없는 군사적상황변화에 대처한 대응 등의 목적으로 이러한 핵공격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벽두부터 세계제패에 대한 광신적인 야망과 무모성으로 걸음걸음 세상을 경악시켜 온 부쉬집단이 이제는 력대 선임행정부들이 준수해 온 핵불사용담보공약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으로 된다.

알려 진바와 같이 핵무기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담보를 공약한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미국은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소유국과 련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인 핵군축합의들을 실현, 유지해 온 근본기초였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미국은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보다 특정적인 담보를 하였었다.

이 담보에 기초하여 우리는 지난 8년간 조미사이에 우리의 핵시설동결 대 미국의 경수로제공을 골자로 하여 조미관계의 개선을 지향한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폭로된 부쉬집단의 핵공격계획은 미국이 그 어떤 국제적합의에도 아랑곳 없이 오직 힘으로 세계제패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장애로 된다고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쌍무적합의도 다 뒤집어 엎고 핵공격을 하려 한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부쉬의 집권하에 평화애호인민들과는 함께 살수 없는 핵불량배국가로 군림하려 하고 있는 사실앞에서 온 세계가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해 하고 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부쉬집단의 핵공격계획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우리 제도를 없애 버리며 그를 위해서는 핵전쟁의 참화로 전체 조선민족을 지구상에서 없애 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무분별한 망상이다.

핵광신자집단이 백악관에 틀고 앉은 오늘의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는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계획이 사실로 확증되는 경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그 어떤 조미합의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에 대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수밖에 없게 하는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게 될것이다.





전쟁연습놀음 당장 걷어 치워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주체91년 3월 14일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미제에 의하여 위험한 전쟁국면에로 치닫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주도하에 남조선에서는 다가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하여 미군과 괴뢰군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이라고 한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미군과 미제7함대소속 항공모함을 비롯하여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50여만명의 남조선괴뢰군이 참가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핵예비전쟁으로 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규모를 훨씬 릉가하는 극히 무모한 불장난소동이다. 부쉬의 ≪악의 축≫망발이후 미행정부안에서 북침열이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에서 이러한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려 하는것은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이 실천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지금까지 갈라서 각각 진행해 오던 북침전쟁연습들을 최종단계에서 완성하여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 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려는데 있다.

지난 시기 서울 이남지역에서 실시하거나 모의훈련으로 대치해오던 두개의 군사연습을 이번에 우리와 가까운 전연지역에서 통합하여 벌리려 하고 있는 사실자체가 미제와 그 주구들이 조선반도정세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이전으로 돌려세우고 사태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려 한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 준다.

특히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년초부터 우리를 ≪악의 축≫으로 걸고 들던 호전광 부쉬가 남조선을 행각하여 전쟁모의를 벌리고 미국이 최근 우리를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해 놓은 사태가 폭로된 이후에 강행되는것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극히 무모한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고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침략전쟁의 서막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제에 의하여 완화와 협력과 단합의 방향으로 흐르던 조선반도정세는 이제 대결과 긴장의 한계를 벗어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접어들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 떠드는 이른바 ≪대화≫니 뭐니 하는것이 완전히 거짓이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그들의 야망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미제의 오만한 ≪힘≫의 정책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제의 모험적인 새 전쟁도발소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도발에는 강력한 보복으로 대답하고 불은 불로 다스리는것이 우리의 기질이며 대응방식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와 복수심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하며 무모한 전쟁연습놀음을 무조건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

만일 미제와 그 주구들이 끝끝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완전히 쓸어 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숙원을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 시각에 해내외의 전체 조선인민은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전쟁의 재난을 몰아 오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호전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 과감히 벌려 나가야 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미국 독선 강권행위 국제법원칙 위반 범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 고소장 - 주체91년 3월 16일

오늘 미국이 패권주의를 추구하면서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독단과 강권으로 전횡을 부리고 있는것은 평화와 진보, 화해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에 배치될뿐아니라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공인된 국제법원칙들을 무시하고 힘을 만능으로 여기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으로 인하여 오늘 국제관계에는 전례 없는 복잡성과 혼란이 조성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는 국제사회에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으로부터 미국의 부쉬정권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범죄집단임을 세계의 진보적인민들과 량심적인 법률가들에게 고발한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최고원칙으로 공인되여 있는 국가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엄중히 위반하고 있다.

오늘 미국의 부쉬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는 다른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것이다.

자주권존중원칙과 내정불간섭원칙은 모든 나라가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합법적지위와 존엄을 서로 존중하고 그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침해유린하지 말데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의 일치한 념원과 요구를 실현하는 문제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들간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도 이 원칙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이로부터 국제관계의 원칙에 관한 모든 국제법문건들에서는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규제하고 대소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헌장도 전반적인 평화와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이 철저히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5년 12월 유엔총회 제20차회의에서 채택된 ≪국가의 국내사항에 대한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독립과 자주권을 옹호할데 관한 선언≫은 모든 국가들이 다른 나라의 국내외문제에 어떤 구실을 가지고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주권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적요소들을 반대하거나 국가주권반대를 지향하는 모든 위협을 금지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매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를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하여서도 명백히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준수할데 대한 요구는 국제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과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법문건들에서 일관하게 확인되고 그 내용도 더욱 구체화되여 왔다.

이 원칙들에 의하여 지난 50여년동안 새로운 세계대전이 방지될수 있었고 세계의 자주화, 국제사회의 민주화과정이 추진되여 올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부쉬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국익우선론≫이라는 간판밑에 당파적 및 개인적리익을 국제법의 우에 놓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공공연히 간섭하고 있다.

자기를 세계우에 군림한 초국가적인 정부로 간주하면서 제멋대로 세계를 선과 악으로 갈라 놓고 저들에게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함부로 걸고 드는 부쉬정권의 행위는 지금까지의 국제관계사에서 다른 주권국가에 대한 존엄유린과 내정간섭의 가장 엄중한 표현으로 된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정치, 사회, 경제제도를 비방중상하면서 저들의 요구대로 뜯어 고칠것을 강요하는것 역시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범죄행위이다.

어떤 정치, 사회, 경제제도를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 민족적전통과 풍습, 발전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철두철미 민족자결권에 속하는 내정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해마다 ≪인권보고서≫요, ≪종교보고서≫요 하는것들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그 나라 인민들이 선택한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구실과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의 범죄적행위는 저들의 국내법을 가지고 제멋대로 남의 나라 정책을 시비하면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의 후과로 수많은 나라들에서 민족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이 억제 당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희생자들이 발생한 사실이 범죄의 엄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자기의 의사를 다른 나라에 내려 먹이려는 미국의 로골적인 강권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느냐, 아니면 약육강식의 법칙에 자리를 내주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현대문명의 력사에서 미국의 부쉬정권처럼 국제법적규범들을 마구 짓밟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국가의 대외정책으로까지 공포하고 실행에 옮기는 포악무도한 범죄적행위로 국제관계전반을 그토록 어지럽힌 례는 없다.

미국은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령토완정의 원칙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사용금지원칙을 혹심하게 유린하고 있다.

미국의 부쉬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엄중한 범죄행위는 세계제패를 추구하면서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서슴없이 위협, 압살하고 있는것이다.

령토완정의 원칙과 힘의 위협 및 힘의 사용금지원칙은 매개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국제법적원리를 구현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무력으로 유린하려는것은 그 나라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으려는 침략행위이며 국가들간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위법행위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엔헌장도 ≪모든 성원국들은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국가의 령토완정이나 정치적독립에 대하여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그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거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규제하고 있으며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국가들간

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원칙에 대한 선언≫과 ≪국제분쟁의 평화적해결에 관한 마닐라선언≫을 비롯한 많은 국제법문건들에 명시되여 있다.

그러나 집권하기전부터 벌써 세계인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의 강행을 대통령선거공약으로 내든 부쉬정권은 국제적인 군축합의들과 국제법적요구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오직 전쟁으로 해결하는 몽둥이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

부쉬정권의 무모한 전쟁정책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이 재더미로 화하고 수많은 민간인희생자가 났으며 중앙아시아와 중동,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등 세계도처에 전쟁의 불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부쉬정권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미국의 군사비를 20년만에 최고증액을 기록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이려 하고 있으며 지어 최근에는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공격을 예견한 새로운 핵전쟁교리까지 내돌리고 있다.

미국은 1978년의 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소유국과 련합하여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 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담보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군축조약들이 합의, 유지되여 온 조건에서 이제 와서 부쉬정권이 이것을 뒤집어 엎는것은 세계평화와 안전분야에서 이루어 진 국제법적기초를 통채로 허물어 버리는것으로 된다.

미국은 저들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을뿐아니라 일본과 같은 종전의 전범국들이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에 추종하여 다시금 범죄의 길을 걷도록 꺼리낌없이 부추기고 있다.

부쉬정권의 적극적인 부추김밑에 일본에서는 해외팽창을 위한 립법체계를 완비하려는 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미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이 합법화되였다.

힘의 립장에 서서 전쟁의 방법으로 저들의 의사를 다른 나라들에 내리 먹이려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는 명백히 평화에 대한 죄에 속하는 범죄행위로 된다.

미국은 국제관계의 기초로 되는 국제공약과 의무를 존중할데 대한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다.

미국의 부쉬정권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행위는 조약에 따라 지닌 자기의 국제적의무를 줴버리고 그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행동하여 국제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것이다.

조약의 체결과 그 준수는 주권국가들이 국제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서로 토의합의하여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호상협조와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국제법형성발전의 기초이다.

유엔헌장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지닌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것이 국가들의 의무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메리카기구헌장은 ≪조약에 대한 존중과 성실한 리행은 국가들간의 평화적관계를 발전시키는 규범으로 된다. 국제조약과 협정들은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은 ≪효력을 가지는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들은 이 조약을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쉬정권은 세계제패를 추구하는 견지에서 국제조약을 저들에게 필요한것과 불필요한것을 갈라 2중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조약에 대해서는 적극 들고 다니고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조약들에 대해서는 의무리행을 회피하거나 지어는 조약자체를 거세해 버리는 강권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부쉬정권이 일방적으로 취한 행위는 1972년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으로부터의 탈퇴, ≪교토의정서≫리행의 거부, 생물무기협약에 따르는 의정서채택의 거부, 아프가니스탄포로취급에서의 제네바협약위반 등 그 실례가 헤아릴수 없다.

그 후과로 인류의 생존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방지하며 인도주의리념을 확립하려는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은 심히 우롱 당하고 수포로 돌아 갔다.

부쉬정권의 범죄행위는 특히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부쉬정권은 선임행정부가 자주권의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우리와 채택하였던 조미기본합의문의 정신을 줴버리고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마구 헐뜯는 망동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를 감행하고 있다.

부쉬정권이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7개 나라를 핵공격의 대상으로 지정한것은 힘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적원칙에 대한 유린으로 될뿐아니라 특히 우리에 대하여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으며 사용하지도 않겠다고 공약한 1993년의 조미공동성명과 1994년의 조미기본합의문의 구체적인 조항까지 란폭하게 위반하는 범죄적행위로 된다.

범죄에 범죄를 낳고 있는 미국의 독선적인 강권행위가 그대로 용납된다면 국제관계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말살되고 세계는 불피코 약육강식의 장글로 화하게 될것이다.

미국의 범죄적인 강권책동을 반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지향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앞에 나선 초미의 과제이며 국제법률기구들과 법률가들앞에 나서는 선차적임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학학회는 세계 법률분야의 모든 기구들과 단체들, 법률가들이 미국의 범죄행위를 단죄규탄하는 정의의 목소리에 합세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소동 규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3월 18일



얼마전 미국남조선 ≪련합군사령부≫는 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남조선전역에서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연습을 통합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군사연습에는 남조선과 미국본토 그리고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수만명의 미군무력과 대부분의 남조선군무력이 참가하게 되며 완전한 ≪실전의 분위기≫에서 진행된다고 한다.

부쉬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선포하고 얼마전에 있은 남조선행각시 최전방과 미군기지들을 싸다니며 전쟁열을 고취한데 이어 최근 미국에서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한 핵공격씨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때에 미국이 남조선전역을 작전무대로하여 악명 높은 ≪팀 스피리트≫를 훨씬 릉가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부쉬집단이 이번에 강행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이다.

현 미행정부의 반공화국강경적대시정책이 이처럼 실천적인 북침전쟁정책에로 넘어감에 따라 지금 조선반도정세는 위험계선을 넘어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현실은 부쉬집단이 지금까지 표방해 온 ≪대화재개≫설이 저들의 전쟁흉계를 가리워 보려는 한갖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하는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약한 6.15북남공동선언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적대행위이다.

그것이 북남관계에 초래하게 될 후과는 예측할수 없다.

미국은 상대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 보고 분별 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도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수 있는 멸적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원쑤들이 끝끝내 침략의 불을 걸어온다면 침략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격멸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미국, 이북 등에 대한 핵공격계획 준비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1일


두 호전광, 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대통령 부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로스엔젤레스 타임스≫는 9일 이북과 러시아, 중국,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공격계획을 마련할 것을 백악관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서는 미국이 이북 등 7개국에 대해 핵무기도입계획을 마련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해 지구촌 어디에도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핵광신자들인 미국의 지배층을 규탄하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또한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방부 대변인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더 큰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을 우려해 핵무기의 목표선정이나 계획에 대한 작전상의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고 변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북 등에 대해 핵무기공격 수립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미국이야말로 핵무기를 가지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임의의 시각에 공격하려고 미쳐 광분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핵전쟁광신자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정권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이 결속단계에 들어서자 기고만장한 미국은 침략전쟁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호전계층은 이북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으로 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호전계층은 전쟁도발의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핵위협전쟁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북의 핵 및 미사일위협과 상용무력감축요구가 그것입니다.

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이북으로부터 미국에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모든 지역을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에 핵무기를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전개하고 공격태세를 취하고 있는 미국이 북의 상용무력감축을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을 무장해제시켜 ***나앉게하고 임의의 시각에 집어삼키려는 날강도의 수작입니다.

미국 호전계층은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날조해내어 북을 위협하고 무장해제시켜 북을 핵무기로 공격하려하지만 그것은 *****자들의 어리석은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북을 임의에 공격한다면 ****************. 미국 호전계층은 *****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북을 핵무기로 공격하려는 범죄적 기도를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호전계층이 핵무기로 북을 타격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거리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 핵공격 계획 새로운 것 아니다 변명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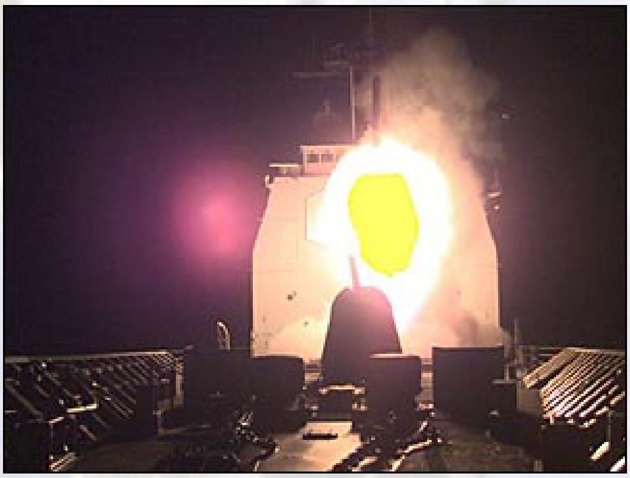
미국은 최근 이북, 러시아, 중국,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한 핵무기사용 공격계획을 마련하고 일정한 전쟁상황에서 사용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개발을 지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부시는 13일 지난해 10월 11일이후 9개월만에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클린턴행정부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느니 뭐니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부시가 해당 국가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에서 벗어나보려는 교활한 술책의 일환입니다.

부시는 공식기자회견에서 핵태세검토보고서내용을 변명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를 잠재워보려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를 선제공격 및 전쟁무기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잠재적 핵공격대상국으로 이북, 이라크, 이란 등 이른바 ≪악의 축≫ 3개국을 포함한 7개국을 지명하고 있고 특정한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욱 정교하고 작은 핵무기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방의 핵무기는 악이고 자신의 핵무기는 선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북의 곳곳에 핵공포를 확산시켜도 된다는 강도적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고 핵광신자입니다.



미국의 권위있는 핵무기전문가 아크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라는 비밀보고서가 끔찍하고 새로운 핵전쟁***** **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계협의회 회장 이사크는 부시행정부가 지금 핵참상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그들이 필사적으로 새로운 핵무기사용목적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미국방부안에 전면핵전쟁수립 용의자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야말로 핵위협의 장본인이며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인류의 가장 흉악한 원수라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부시는 그 어떤 변명으로써도 이북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핵공격을 가하려는 범죄적 흉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부시는 핵태세검토보고서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느니 뭐니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 전가시켜보려고 책동할 것이 아니라 핵우위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부시행정부가 내외여론의 정당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나라들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올 것이고 그 재앙이 미국에도 도래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행동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부시집단이 권좌에 있는한 우리 민중은 핵공격위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핵반미투쟁의 파고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각계, 미국의 핵전쟁계획 규탄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5일 17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등 각계 시민단체들은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을 검토한 사실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지난 12일 제30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부시가 인류를 파멸에로 몰고갈 핵전쟁을 획책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특히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미국의 선제핵공격에 맞서 온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아 투쟁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인류양심과 온 겨레의 투쟁의지를 그대로 대변한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온 겨레, 온 세계가 부시행정부의 핵공격계획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이를 견결히 규탄배격하고 있습니다.

부시의 핵공격계획이 전세계의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시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이 국제적인 핵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그것이 종당에는 인류파멸을 초래케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난 1988년 핵무기소유국들이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불사용 담보를 공약한 유엔 군축특별회의에서 미국의 선임자들이 비핵국가가 다른 핵무기소유국과 연합해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공격해오지 않는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은 핵무기사용의 이같은 위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을 비롯해 모든 국제적인 군축합의들을 시종 유지해온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북의 경우 이북은 1993년에 북미공동성명과 1994년에 북미기본합의문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협정들을 채택했습니다. 더욱이 이북은 비핵국가이며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을 침략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가 역대 행정부들이 유지해온 핵불사용담보규약마저 뒤엎고 이북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 대해 핵선제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니 이야말로 이성을 잃은 핵광신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치광이의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시의 핵공격계획이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과 부시의 서울행각에 뒤따른 대규모 북침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호전적 부시정권의 이북에 대한 핵공격계획이 실천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북에 대한 핵공격은 한반도에서의 핵공격을 의미하며 이것은 결국 민족공멸을 의미합니다. 정말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부시행정부의 핵공격계획이 알려지자마자 온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이 땅의 각계 민중은 물론 정치권과 언론들에서 한결같이 미국을 규탄배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각계 시민단체들이 미당국자,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부시의 핵공격계획을 규탄배격하면서 투쟁결의를 다진 것은 바로 이같은 국민적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당국이 이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해 나선 것은 국민적 의지에 역행하는 반국민적, 반민족적 행위로써 과연 그들에게 민족의 피가 흐르는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당국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은 부시의 핵공격책동이 초래할 민족공멸의 엄중한 사태를 똑바로 보고 전국민적인 거족적 반미반전반핵투쟁으로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북침책동을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위험한 북침전쟁책동

구국의 소리, 주체 91년 3월 13일~15일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남의 반통일호전분자들은 끝내 이 땅에서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여놓으려고 책동하고 있는데요. 이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바라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용납못할 악랄한 도전이라고 할겁니다. 임기수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방해자인 미국이 국군과 함께 이 땅에서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벌이려고 하고 있어 지금 각계 국민들의 강력한 항의, 규탄, 배격을 받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월 28일 한미연합사령부는 지금까지 해마다 별도로 진행돼온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어요. 이건 매우 심상치않은 군사적 움직임입니다.

지금 미국대통령 부시는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반북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북적대시정책으로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에 커다란 제동이 걸려있고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으며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미군과 국군이 이북을 반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이기로 한 건 미국이 이북과의 관계에서 위험한 군사대결로 나오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됩니다.

미국이 이번에 통합해 진행하려는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으로 말하면 철두철미 북침전쟁연습입니다. 먼저 연합전시증원훈련으로 말하면 전쟁이 발발했을때 해외에서 증원되는 병력과 장비를 수용하는 지휘능력을 훈련시키고 평가하기 위한 군사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경우 미국본토, 일본 그리고 괌도 등 해외로부터 대규모 미군이 한반도 포항으로 도착하는데 그때 이 증원된 병력과 장비들을 한시에 전방전선까지 효과적으로 조직해 보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또한 독수리훈련도 이북을 침략하기 위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입니다. 이 훈련에는 미군 수만명을 포함해 한미연합군 5000만명이상이 참가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런 두개의 군사훈련을 이번에 통합해 실시하기로 한 건 한반도에서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데 있습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망언한 부시가 한국행각후 이런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벌이려는데 그 엄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시의 한국행각이 내외가 인정하는 것과 같이 북침전쟁 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전쟁행각이였으며 이번 전쟁연습은 힘으로 이북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실전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고만장해진 부시정권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한반도에서 새전쟁의 무대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은 아프가니스탄도 아니며 유고슬라비아나 이라크도 아닙니다. 이북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미국에 안긴 영웅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것을 망각하고 한반도에서 새전쟁을 일으킨다면 6.25전쟁때보다 더 큰 참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북을 침략하려는 무모한 짓을 버리고 반북적대시정책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각계 국민들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는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경각심을 높이며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하지 않은 부시의 전쟁광신적 본색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6일



부시의 악의 축망발이후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물끓듯하고 있는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이북강경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도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명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당국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도 부시의 한국행각으로 한반도의 긴장한 정세가 마치 완화된 듯이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건 사태의 본질을 깊이 투시해보지 못한데로부터 나온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실적 감각, 정세적 감각이 무딘데서 나온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시의 행각으로 한반도정세가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부시의 한반도강경정책, 대북적대시정책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한반도정세가 긴장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시의 한국행각후 그를 환상적으로 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일부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매우 경계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옳은 말씀이예요. 부시는 한국행각시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느니 미국은 북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느니 당국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느니 하고 떠들었고 도라산역에 가서는 침목에 한민족 하나되길 바란다는 글을 써넣었어요. 일부에서는 부시의 이런 간교한 작태를 두고 부시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이 마치 달라진 듯이 떠들고 있고 일부 각성되지 못한 사람들, 예리한 안목으로 부시의 망언을 분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환상적으로 대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부시의 간교성을 보려하지 않거나 모르는데서 나온 거죠.
사회자 : 한국행각시 부시의 언행들을 주시해보면 부시의 광신적인 본색은 조금도 변한게 없고 오히려 한반도강경정책, 대북압살책동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부시는 한국행각시에도 광신적이고 오만한 작태를 그대로 드러내놓았어요. 그는 주한미군부대에 찾아가서 악의 축망언을 줴쳐대면서 미군침략세력에게 전쟁열을 부추겼고 또 당국자들앞에서는 북이 어둠의 세계라느니 북이 투명성을 갖추기 전에는 북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느니 북의 대량살상무기 등 현안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느니 하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죠. 부시의 악의 축망언은 우리 민족은 물론 전세계를 격분시켰잖아요. 부시의 이 호전적인 망언은 사실상 북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온 세계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시는 이 땅에 기어들어서까지도 악의 축망언을 거리낌없이 또다시 줴쳤던 거죠. 북을 어둠의 세계라고 한 부시의 망언은 북의 체제,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못할 궤변이라 할 수 있어요. 부시가 투명성문제를 운운한 것도 호전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부시는 이미 전부터 있지도 않은 북의 핵문제를 걸고들며 검증이요 투명성이요 뭐요하면서 북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이번 한국행각시 이 문제를 또다시 들고 나온겁니다. 부시가 한미동맹에 기초한 대응정책추진에 대해 떠든건 우리 민족의 자주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유린행위죠. 한미동맹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 바꾸어말하면 이 땅을 계속 핵무기로 짓밟고 있으면서 북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기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밖에도 부시의 광신적인 본색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 몇가지 사실만봐도 부시의 대북정책, 한반도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사회자 : 부시집단은 한국행각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악의 축망언을 되풀이하면서 북에 대한 압살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죠.

유진명 : 부시와 그 호전집단은 북의 체제와 제도를 걸고들면서 체제와 제도의 변화를 떠들고 있어요. 북의 체제와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 우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깡패집단인 부시정권이 감히 북의 자주제도를 걸고든다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의 인권문제, 종교문제까지 또다시 들고나왔는데요. 이것은 부시집단의 북에 대한 압살기도가 얼마나 위험한 계선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는거라고 봅니다.

사회자 : 당국자들은 부시의 행각으로 한반도문제, 북미간의 문제도 풀릴거라고 떠들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이에 환상적으로 대하거나 기대를 거는 경향도 없지 않은데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유진명 : 앞에서도 얘기됐지만 일부 사람들은 부시의 간교한 궤변에 귀를 기울여 부시의 전쟁광신적 본색이 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이건 부시의 광신적 본색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부시가 떠든 악의 축망언과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궤변은 인맥상통한 겁니다. 악의 축이라는 선전포고를 해놓고 북과 전쟁을 안하겠다는 건 말도 되질 않아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죠. 미제와 이 땅의 군부당국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기로 했어요. 이 전쟁연습이 북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인거예요. 이것은 부시가 떠든 북과 전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궤변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부시가 북과의 대화문제를 운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시는 조건있는 대화, 말하자면 미사일문제, 핵문제, 생물화학무기문제를 대화의 기본조건, 기본전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북과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걸 말해주는겁니다.

사회자 : 부시는 마치도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떠들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한반도문제를 남과 북이 자체로 해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검은 속셈을 가리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진명 : 옳아요. 우리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가장 우려하고 가로막고 있는건 바로 부시호전집단이예요. 우리 겨레,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반영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노골적으로 반대해 나선 것은 부시호전집단이죠. 그리고 6.15공동선언발표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던 것이 지금처럼 경직상태에 놓이게 된 것도 그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부시호전집단은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꺾으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죠.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부시의 전쟁광신적인 본색을 똑바로 알고 부시의 전쟁책동반통일책동을 반대해 나서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진명 :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부시호전집단에 어떤 환상이나 기대도 가져서는 안돼요. 부시에 대한 환상이나 기대는 민족공멸을 가져오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부시의 대북전쟁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분쇄해버려야 할거예요. 북이 있어야 이남도 있고 북이 있어야 우리 민족이 있는 겁니다. 부시호전집단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는 시시각각으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을 무심히 대해서는 안됩니다. 악의 화신인 부시의 호전적인 본색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그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한 한반도의 긴장한 정세는 절대로 완화되지 않아요. 국민모두가 부시의 광신적인 본색을 똑바로 보고 양키침략자들과 사생결단으로 싸울 각오를 굳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미국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라의 통일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게 돼죠.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늑대가 양으로 변할 수 없고 미국의 침략적 체질 역시 변할 수 없다는 것 잊지마시고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해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겁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8일~19일

한반도를 이르러 세상사람들은 화약고라 하는데요. 성냥개비 하나를 잘못 그어도 순간에 무서운 참화를 빚어낼만큼 한반도의 상태는 첨예화되었다 하겠습니다. 다 미국때문이죠. 북침을 기정사실화하고 각종 전쟁연습에 광분해온 미국이 이제 곧 이 땅의 반통일세력과 야합하여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벌이려해요. 이 소식에 접한 우리 청년학생들의 심정, 고려대 최모씨의 글을 들어보며 새겨봅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임현아씨 보내드립니다.



미군 수만명과 국군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곧 실시될 것이라고 한다.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연계하여 실시하기로 했다는 한미연합사령부의 발표에 접했었다. 나의 가슴은 미국에 대한 증오로 가득 채워졌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원래 독수리훈련은 한미연합야외기동연습으로써 해마다 가을에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한미연합사령부는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 발표와 함께 우리 청년학생들속에서는 각이한 주장들이 무성했다. 일부 학생들은 한반도정세를 고려한 미국의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9.11사건으로 말미암아 테러공포증에 시달리는 미국으로써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할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은 독수리가 주춤거림은 발톱을 더 날카롭게 갈기 위한 거라며 미국의 책동에 예의주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으로 시간의 흐름은 빠르다. 그때가 가을이였는데 벌써 한겨울이 가고 새싹이 움트는 봄이 찾아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는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난 한겨울 미국이 북침을 강행하기 위해 얼마나 피를 물고 식민지발톱을 갈아왔는가를 더욱 잘 알게 해주었다.

연습은 연합전시증원연습과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을 연계해 실시하는 것은 군사훈련을 보다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려는 것이지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미국. 그 미국* 더더욱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이같은 전쟁연습이 곧 침략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것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기정의 사실이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한반도에 평화와 단합의 기운이 높아가고 냉전의 기류가 사라지는 현실을 보며 우리 민중은 얼마나 가슴 부풀었던가. 그러한 한반도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으로 하여 현시기 첨예한 긴장이 감도는 행성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우리 민중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대규모군사연습까지 감행하며 온 겨레에게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미국의 책동은 반미자주없는 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아무리 평화와 화해를 부르짖고 교류협력을 강화해도 반미자주를 외면하면 공염불이 된다는 것을 천으로 만으로 새겨주고 있다.

겨레의 통일기운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악을 품고 우리 민족의 분열을 강요해나서는 미국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피가 끓어번진다. 이것이 어찌 나만의 심정이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이남 민중 모두의 심정이다. 지금 각계 민중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이던 그 기세로 다시금 들고일어나 미국과 사대매국세력이 야합하여 벌이는 북침전쟁연습을 짓부셔버릴 의지로 가슴들을 불태우고 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실시와 함께 지금 지구촌을 뒤흔드는 우리 민중의 더욱 격노한 반미함성을 굳게 느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번 전쟁연습기간을 반미항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 계기로 삼고 과감히 싸워나가야 할 줄 압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전면적 전쟁연습≫

시민사회단체, 훈련 당일 해상 시위 등 강행 예정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될 한미연합연습(RSO&I/FE 02)에 대해 북한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사관 앞 1인 단식시위를 벌이는 한편 훈련 당일 해상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통일협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소속 700여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낮 12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 방한 반대투쟁의 연속선상에서 전쟁연합반대 투쟁을 반전 반미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필연적으로 이북의 대응훈련을 불러오는 등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어느 때보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실시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이기에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면서 ≪이번 훈련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루어진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저지하기 위해 19일부터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20일부터 한상렬 상임고문(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도 7박8일간 같은 장소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또 부산, 진해 등에서 병력이 들어올 때를 기해 해상시위를 벌이는 한편 매향리 훈련장에서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들은 오는 23일 종묘공원에서 대규모 대중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이들이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가 전쟁 실험장이냐, 미국은 민족대결 부추기는 한미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국고낭비, 국토파괴, 한미 합동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작전 지휘권 강탈도 억울한 데 연합훈련비 분담 웬말이냐≫.

한편 이번 훈련은 해마다 별도로 진행돼온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합동군사훈련(FE)이 통합된 것으로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와 일본, 괌 등에 주둔중인 미군이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며 참가 연인원만도 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주한미군 연습과장인 크레이드 존슨 공군대령은 주한미군 소식지(Let's Go Together) 3월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21일~27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연습은 다른 연합 연습과 마찬가지로 방어 위주의 훈련이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휘소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연습을 통해 경험이 적은 젊은 군인들을 교육하고 선임 지휘관들의 의사결정 능력을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상호작전의 호환성과 한미 양국의 연합 전투력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적이 다른 2개국의 방어체계에 필수적인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위험 수위로 치닫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라고 할 만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강화의 일대계기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한미연합사령부는 정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 전면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시작으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등 사회단체들의 잇단 성명과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극히 위험천만한 침략전쟁의 서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18일에도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악의 축≫ 발언 등 북침 전쟁광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이어 군사분계선 밑에서 전쟁연습을 벌이는 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전쟁도화선에 불을 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조선중앙TV도 19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인민군 군관 및 대학생들의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제2 조선전쟁≫이 시간문제로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또 이날 **김일성**종합대학생들의 ≪반향≫을 전하며 ≪북한 각지 청년대학생들이 어느 때든 결전장으로 달려나갈 불같은 일념에 넘쳐 있다≫고 전했다.

북한 외무성도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시 집단이 이번에 감행하려는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도발 책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외무성은 또 ≪남조선 호전세력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약한 6.15북남공동선언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적대행위≫라면서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도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 수 있는 멸적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희정 기자
2002/03/20 오마이뉴스

우리 공화국 중상모독한 리회창 규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816호, 3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서기국 보도 제816호를 통하여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일본을 행각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중상모독하는 악담을 늘어 놓은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리회창은 일본에 가서 그 누구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해 떠들었으며 우리의 존엄 높은 정치체제까지 악의에 차서 헐뜯었다.

또한 일본상전에게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감히 우리 공화국을 해쳐 보려는 속심까지 내비쳤다.

보도는 이 모든 험담질은 민족반역자, 친미친일 2중주구로서의 그의 더러운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번에 리회창따위가 애비의 친일행적을 따라 일본에 갔다 온것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2의 상전을 찾아 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고 반공화국열을 올린 대가로 외세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비렬한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권력욕에 환장이 되여 외세에 민족내부문제를 송사질하며 동족을 해치고 북남대결과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는것마저 서슴지 않는 희세의 민족반역자인 리회창역도를 준렬히 규탄한다.

존엄 높은 우리의 정치체제를 함부로 걸고 들고 우리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한 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이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우리는 리회창역도가 자기의 사대매국적이며 반공화국, 반통일적인 일거일동이 분노에 찬 우리 인민의 눈초리안에 들어 있다는것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것을 단호히 경고한다.

이회창, 일본서 이북 걸고드는 반민족망언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2일~13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일본을 행각중인 이회창은 고이즈미와 만난 자리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산가족교환방문이 북의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느니 북이 신뢰가 없다느니 하고 줴쳐댔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에 이해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경보였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친미사대매국근성이 골수에까지 밴 추악한 민족반역자의 넋두리로써 민족자주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과 온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입니다.

지금 각계에서는 이회창의 이같은 민족반역적 작태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6.15공동선언이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때문입니다.

미국 부시정권은 출범후 이북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실시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섰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맞장구를 치며 온갖 못된 짓을 다해온 것이 바로 이회창일당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됐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국의 편에 서서 이북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았으니 이보다 더 미국의 충견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회창이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비호두둔해 나선 것입니다.

부시의 이북에 대한 악의 축망발은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침략도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물론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두고 단죄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회창이 반북적인 악담을 써가며 부시의 악의 축망발을 노골적으로 비호두둔해 나선 것은 그의 체내에 민족의 피가 아니라 매국배족의 검은 피가 흐르고 있고 그의 안중에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아니라 일신의 더러운 집권욕만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대매국노들이 적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은 이회창과 같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동족을 걸고 들며 미국 상전에 추파를 던진 사대매국역적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역적중의 역적이고 매국노중의 매국노입니다.

가소로운 것은 이회창이 마치도 제가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이따위 민족반역행위를 일삼은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 양키를 찾아가 미상전의 대북강경정책 각본을 되받아 외우며 미친듯이 줴쳐대더니 오늘은 또 일본 쪽바리들을 찾아가 발바닥을 핥으며 동족헐뜯기에 광분하고 있으니 이회창의 행위야말로 온 국민과 민족의 버림을 받은 제 주제도 모르고 동분서주하는 얼간망둥이의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사대매국에 미쳐 돌아치는 이회창이 권좌에 올라앉으면 6.15공동선언이 백지화되고 우리 민중은 핵참화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전 국민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극악한 사대매국노 이회창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6일

이회창이 지난 1월 한나라당패당들을 끌고 5박6일간에 걸쳐 미국행각을 해 부시행정부의 실권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잘 돌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비굴한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이회창과 함께 갔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잘보여야 한자리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인이라고 그럽니다. 허나 이회창이 노는 꼴, 이회창이 당하는 수모는 창피해서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이회창이 부시행정부 실권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는 부시행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주로 묻고 이회창총재가 답변하는 형식이여서 마치 대선을 앞둔 검증절차처럼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이회창의 미국행각 그것은 대선후보자격을 따내기 위한 면접시험을 보러 갔던 거라고 할겁니다. 반미운동가 김정철씨의 글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천하는 시대를 정확히 표시할줄 아는 능력은 정치가가 지녀야할 자질에서도 근본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시대감각이 예민하지 못한 정치가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고 일순간의 기득권은 챙길 수 있다해도 종당에는 민중의 규탄과 배격, 대파멸의 운명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정치가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이런 초보적인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적 미숙아가 대통령꿈을 꾸고 있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항의를 받고 있다. 그가 다름아닌 한나라당의 이회창총재이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그 천부적인 속셈, 기질에 권좌에 대한 야망까지 가세하여 온갖 배포유망언을 늘어놓아 민중의 항거의 대상이 되고 자기 측근들로부터도 배척받고 있는 현대판 놀부, 죄악의 정치인 이회창. 그 이회창이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더더욱 미국의 주위에 줄서기를 하며 비위맞추기에 급급하는 꼴은 실망감을 넘어 분격을 가중시킨다.

최근들어 그가 미국의 반북대결의 나팔수가 되어 토해낸 몇가지 악담들만 보자.

≪한반도 긴장완화의 핵심은 북의 대량살상무기 위협해소이다≫, ≪북은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한미간의 굳건한 공조로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 ≪한국사회의 반미감정은 노근리, 매향리 등에 국한된 지극히 일부의 감정이다≫

까마귀 아무리 울어도 까욱소리뿐이라고 그가 내뱉는 말들에서는 민족을 위한 사고라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입만 벌어지면 자기들이 문제로 지적해왔던 바를 부시정권이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반기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열띤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 재미언론인 김민웅씨의 경우도 ≪이회창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치인이란 말인가.≫

이회창의 골수에 대미사대의식이 꽉 들어찬 특등매국노라는 것은 최근 들어난 미국대사관과의 접촉관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한 월간잡지에 따르면 이회창은 자기 당 의원들로 하여금 미대사관 성원들과 친분을 쌓게 하고 그것을 근간으로 스스로 미국의 정계, 사회계 인물들과 접촉했다고 한다. 심지어 그는 미대사관과의 관계를 잘 가져보려는 속셈밑에 한나라당 의원들과 미대사관 성원들간의 친선골프놀이도 계획하는 추태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미대사관측까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겠는가.

되새겨보면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예속이 강요되는 이 땅에서는 지난 기간 미국을 할애비처럼 섬기며 상관의 입김에 힘입어 권좌에 오를 야망을 꾼 대통령병환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회창과 같이 앞뒤분간도 못하고 시대흐름에 역행해서 민족을 팔고 민족을 망신시킨 그런 대통령병 중환자, 민족반역자는 없었다.

지금은 우리 민중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열매를 친미사대매국세력에게 찬탈당하던 1960년대도, 80년대도 아니다. 지금은 21세기이며 현시대는 7천만 겨레 모두가 6.15공동선언이행에 발걸음을 맞춰나가는 자주통일시대이다. 이 시대의 주적은 미국이며 주타격대상은 외세에 아부하며 일신일파의 부귀영달만을 꾀하는 민족분열세력이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쓰레기 부시는 방한시 목을 내놓아야 한다≫, ≪부시방한 자체가 전쟁이다≫, ≪전쟁의 씨뿌리는 악의 근원 미국을 몰아내자≫, ≪꺼져가는 미국의 숨통을 전민족의 단합된 투쟁으로 꽉 조여주자≫.

한국반미항전사 어느 갈피에 이렇듯 격조높은 반미함성으로 경향을 휩쓸며 투쟁한 사례가 기록된 적 있었던가. 부시방한을 계기로 각계층 단체들이 발표한 그 많은 문서들이, 600여개의 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결하여 벌인 동시다발집회 등 각종 투쟁들에 자주로 끓어번지고 통일로 맥박치는 오늘의 시대상이 응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청와대입주야망을 이루어보려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련한 존재인가.

지난해 ≪말≫지 12월호는 ≪이회창대선가도 아킬레스건 9가지≫라는 제하의 글에서 보수수구노선만을 견지해온 이회창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만한 인물이 못된다는 점을 첫번째로 꼽았다.

한총련은 지난 2월 3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회창을 통일시대의 자격미달정치인으로 낙인하고 그의 정치적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충청총련은 이회창이 미국에서 한 언동을 규탄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고 비수같이 **했다.

그렇다. 민족반역배들에게는 민중의 항의와 규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 자들에게는 앞날도 없다. 자주통일열기로 끓어번지는 이 땅에는 그런 인간추물들이 호흡할 공기도, 딛고 설 대지도, 죽어 묻힐 한평의 땅도 있을 수 없다. 40여년전 민중의 저주를 받으며 하와이로 쫓겨가 객사한 미국의 노복 이승만의 불후한 운명이 그러했다. 아직도 이 땅에 이회창과 같이 민족의 이익을 희생하는 댓가로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사대매국분자들이 있는 한 이승만의 비참한 종말은 결코 과거의 교훈일 수만 없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시대의 오물을 정치무대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 더욱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회창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6일



색깔론공세는 역대 통치배들이 위기의 철때마다 상투적으로 써오던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이다. 하기에 그것은 매번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색깔론공세는 시대가 달라진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총재라는 이회창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를 계속 펴고 있어 국민각계의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7천만의 온 겨레가 감격과 기쁨을 금치 못하며 커다란 환희에 넘쳐 있을 때 유독 이회창은 이면합의설, 달러제공설, 북한불변론을 유포시키며 색깔론공세를 했다.

지난해 8.15를 계기로 평양에서 분단사상 처음으로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축제행사를 벌일때에는 대북굴욕외교, 눈치보기의 감투를 씌우다못해 무슨 돌출사건을 만들어 남북대결을 고취하고 이 땅에 신매카시즘선풍을 몰아왔다. 그리고 북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국세청의 언론사세무조사에 대해서까지 북의 관변단체, 홍위병으로 매도하며 시민단체들과 민주인사들을 중상모독했는가하면 무슨 사전정비작업 운운하며 악랄하게 남북대결을 고취했다.

이회창이 기회있을 때마다 떠드는 퍼주기론도 뒤집어놓은 색깔론이다. 그는 걸핏하면 국민의 혈세를 퍼주기요 대북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와는 달리 왜곡 과장된 것이고 퍼주기라는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이름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차단하고 6.15공동선언을 백지화하려는 추악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퍼주기라는 감투를 씌운 것은 국민기만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국이 진짜 퍼주기를 하는 것은 어디겠는가. 한국은 미국의 군수독점체에 집중적인 퍼주기를 하고 있다. 군전력증강 5개년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30조원의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있는데 차세대전투기와 차기대공미사일, 육군 차세대공격용헬기사업 등에 10조원대가 퍼부어지는 것이다. 이 차세대전투무기들은 대체로 미국산 전쟁장비들로 확정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은 미국 군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기 위해 명분도 없는 전쟁장비들을 대량 끌어들이면서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에 푹푹 퍼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로 퍼주기 하고 있는 것은 모른체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데 대해서는 집요하게 퍼주기론을 퍼뜨리는 이회창이야말로 얼마나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인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도입문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등장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가 공포되었을 때 이회창은 한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은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무용지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비공개자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말을 되풀이했다.

이회창은 그후 측근들을 사주해 미국첨단무기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 실천에 나섰다. 다시 말해서 한국군이 세계에서 가장 낙후한 무기체제를 운용하는 구식군대라고 하면서 새로운 무기구매에 열을 올리게 했다. 미사일사기극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지난해말부터 한국군이 보유한 나이키지대공미사일의 성능을 들러싸고 사기극이 연출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나이키미사일의 성능을 검토한 결과 영하50도에서 가동율이 8%불과하다는 결과를 조작발표했다. 100기의 미사일중에서 92기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창안품이다. 이회창패당이 이 수치를 근거로 한국의 영공이 완전히 무너진 듯이 떠들었고 보수언론을 부추겨 확대왜곡하게 했다. 그들 자체는 관계당국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색깔론공세를 들이댔다. 그러나 한국의 영공이 무너져버렸다는 이회창패당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방공무기로는 나이키미사일만이 아니라 중거리방공미사일로 **미사일과 최근 개발이 완료돼 야전에 배치된 천마, 패가수스마사일이 있다. 단거리방공무기로는 40미리미터 기관포를 장착한 비호가 있고 수도권방어의 핵심은 발칸과 보티콘이 있으며 자브린, 싱거, 미스트랄과 같은 휴대용 방공미사일도 대량 가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이 마감중인 중거리지대공미사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공이 무너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회창패당의 주장은 미국의 첨단무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모략극이다. 그 첨단무기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이다.

이회창이 색깔론공세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막대한 국민혈세를 미국에 섬겨바치고 미국의 신임을 얻어 권좌를 차지해 미국의 첨단무기들로 북침전쟁을 일으키려는데 있다. 이회창의 색깔론공세가 이쯤되고 보면 그것이 몇몇 사람을 중상모독하고 헐뜯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을 덮씌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자가 권좌를 차지하면 우리 민중의 생존의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우리 민족은 전쟁의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각계 민중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로 민심을 혼란케하고 민족재난을 가져오려는 이회창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오늘 우리 민중은 반미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린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20주년을 맞으며 견결한 반미자주화투쟁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1982년 3월 18일 부산의 청년학생들은 이 땅을 강점하고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군사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광주시를 피바다속에 잠근 미제침략군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뜨리며 부산미국문화원에 불을 지르고 ≪미국 나가라≫,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규탄한다≫ 등의 반미삐라들을 뿌리며 반미투쟁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피끓는 청년학생들의 이 의로운 장거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준엄한 심판이였으며 미제의 한국강점과 침략책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정의의 애국투쟁이였다.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을 통하여 우리 민중은 이 땅이 결코 미국의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미제와 친미군사파쇼독재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식민지암흑을 불사르고 반미자주의 타종을 높이 울린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은 친미사대의식으로 결박되었던 우리 민중에게 반미자주의식을 깨우쳐주었고 반미자주투쟁을 강화발전시키게 한 또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이 있은 이후 이 땅 도처에서 미국문화원과 공보원, 서울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식민지통치기관들을 습격하고 점거농성하는 투쟁이 연속 일어났으며 미국성조기를 불태우고 미제의 전쟁연습과 내정간섭책동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이 적극 벌어졌다.

오늘 이 땅에 조성된 정세는 반미자주화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민중속에서 높아가고 있는 자주, 민주, 통일기운을 못마땅해 하면서 그에 차단봉을 내리우는 책동을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집권이후 줄곧 힘의 정책을 공공연히 표방해온 부시행정부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악의 축≫폭언과 서울행각, ≪핵태세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킬 흉심을 드러냈으며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국내정에 대한 간섭을 배가하면서 영구지배야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우리 민중의 지향은 영영 짓밟히게 될 엄중한 형세에 놓여 있다.

이북에 대한 공격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없고 핵참화에는 남과 북의 경계선이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민족이 공멸한다.

우리 민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전국민은 부시의 서울행각을 계기로 힘있게 벌인 반미반부시투쟁기세를 늦추지 말고 반미반전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여야 한다.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와 한반도에서의 핵전쟁도발책동중지, 내정간섭반대, 미군철수의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강력한 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리자.

현당국은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를 걷어치워야한다.

미국은 우리 민중의 꺾을 수 없는 반미자주화의지를 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21일부터 벌여놓으려는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걷어치우고 이 땅에서 핵무기와 강점군을 걷어가지고 즉각 물러가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시행정부가 끝끝내 전쟁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양민학살의 피로 물든 이 땅을 미제침략군의 시체와 죽음의 매장터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주체91 (2002)년 3월 18일
서울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돌을 기념하며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대변인 보도 21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50(1961)년 9월의 조선노동당 제 4차 대회에서 이남에서의 영웅적인 4월 봉기가 실패하게 된 주체적 원인은 바로 혁명적 당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총화하시며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시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쓰라린 경험에서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은 광범한 군중 속에 깊이 뿌리 박은 로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그 합법적 지위를 쟁취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바로 이 가르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이남의 혁명가들은 이남혁명의 참모부이며 이남민중의 전위대인 ≪통일혁명당≫창당을 목표로 투쟁하였으며 주체 53(1964)년 3월 15일 그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서울에서 진행된 통일혁명당창당 서울시준비위원회의 결성식은 이남역사상 최초로 **김일성**주의를 지도이념으로 하는 당창당준비위원회결성식이었다. 결성식에서는 김종태동지가 만장일치로 서울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통일혁명당은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을 전국혁명의 최고영도자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며 이남지역의 혁명을 당면목표로 하는 이남혁명의 현지사령부였다.

통일혁명당은 60년대 내내 주체의 지도사상을 확립하고 견실하고 유능한 영도핵심을 발굴육성하며 노동계급과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광범한 국민대중속에 튼튼히 토대함으로써 자체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였으며 드디어 주체 58(1969)년 8월 25일 그 중앙위원회를 결성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통일혁명당은 주객관적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 74(1985)년 7월 27일에 ≪한국민족민주전선≫으로 전화발전하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남변혁의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통일혁명당은 창당과정에서 서울시준비위원회, 전라남도준비위원회가 공안파쇼당국에 의하여 파괴되는가 하면 통일혁명당 창당 이후 70년대 내내 그 하부조직사건이 이어지는 시련을 겪었지만 위대한 혁명사상과 튼튼한 대중지반, 그리고 당원들의 불굴의 투쟁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어 오히려 당은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당에 대한 이남민중의 신뢰 또한 절대화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와 결단으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가 발표되어 마침내 조국의 통일혁명이 일정에 올려지게 된 오늘의 정세는 북과 남의 혁명역량을 통일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며 전국적 관점의 정치, 조직, 투쟁 노선을 확립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의 합법적 주체세력이며 전위당의 한 형태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항일혁명시기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위원장으로 모신 국내당공작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한 박달동지처럼 이남혁명투쟁에서 경애하는 **김일성**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통일혁명당 서울시조직을 책임진 김종태동지의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조국과 혁명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우리 이남의 열혈 청년주체주의자들은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통일혁명당원들의 숭고한 혁명적 모범을 따라 오늘의 **김일성**장군님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실 영광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헌신분투하고 계속혁신할 것이다.

주체 91(2002)년 3월 15일

통일연대 1주년 기념식 열려

통일운동의 광범위한 연대체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가 15일 창립 1주년을 맞이했다.

15일 오후 6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통일연대 1주년 기념식과 2002자주통일결의대회≫가 민족민주운동단체 각계인사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남북공동선언의 성과로 구성된 통일연대의 2001년 한해를 돌아보고, 2002년 새로운 통일행보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고 문익환 목사의 미망인 박용길 장로의 대회사로 시작된 1주년 기념식은 김철 천도교 중앙교령과 손장래 민화협 상임대표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김철 천도교 중앙교령은 ≪어려운 시기에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통일연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주위에서 염려는 있었지만, 통일운동에 앞장서 온 사람들과 손을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연대의 마음을 전해 참가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북과 남의 애국역량이 단결하여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6.15공동선언을 더욱 지지관철해나가자≫고 호소한 북측 민화협에서 온 축하 편지를 통일연대 박순경 명예대표가 낭독했다.

다음으로, 전농, 민주노총, 한총련, 한청, 반미여성회 등의 통일연대 소속의 부문단체들의 결의발언 후 99년 방북대표였던 이성우, 황혜로씨가 나와 2년여만에 출소인사를 하는 순서가 진행됐다.

한총련 방북대표 황혜로 학우는 ≪각계각층의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많은 감동을 받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고, 이성우 전국연합 방북대표는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한총련 학생들과 희망새의 축하공연 후 한상열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실현 ▲전국적 반미반전운동 ▲광범위한 민족대단결운동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통한 민간통일운동역량 강화를 2002년 통일연대의 목표로 선언했다.

또한 이날 기념식 행사전에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는 한상렬 상임대표를 상임대표자회의 의장으로 선출하고 상임공동집행위원장에 한충목, 고영대, 사무처장에 김이경, 대변인에 김성윤씨를 선출하는 등 간부진을 인선했다.

이날 행사는 신창균 옹의 만세삼창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통일연대의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2002년 통일운동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1주년 기념식에 앞서 통일연대는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6.15공동선언 이행,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규탄, 아리랑축전 대중적 성사를 위한 5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의 전쟁책동 규탄과, 아리랑축전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자리로 만들 것≫을 다짐했다.







장동렬 기자
2002/03/06 통일뉴스

≪아리랑≫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 조직

1. 사업취지

미국과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내정간섭과 핵전쟁위협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4월29일부터 시작되는 ≪아리랑≫축전에의 대규모 참가 노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웅장한 집단 예술행사로 개최되는 ≪아리랑≫축전에 질서있고 대규모적인 참가단을 조직함으로써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남북노동자들간의 단결과 연대를 대중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앞장선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아리랑≫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을 조직한다.

2.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참가단 조직 지침

▷ 행사명칭: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관람 등.

▷ 축전기간: 2002년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일요일 제외, 1일1회 공연, 총 54회 공연).

▷ 장소: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

▷ 참가일정, 비용, 구비서류, 준비물 등은 4월초로 예정된 북과의 실무협상 후 추가지침 공지.

1) 아리랑 축전 관람 민주노총 1차 참가단 조직화.
- 2002년 4월 13일까지 각 연맹, 지역별 참가신청서 중앙으로 취합(참가신청서 첨부)
- 4월 초 예정된 실무협상 후 세부지침(방북일자와 세부일정, 참가경비, 교통편, 등) 공지.
- 4월말부터 6월하순까지 진행되는 아리랑 축전에의 지속 참가는 추후 지침 참조.

2) 각 연맹, 지역본부별 아리랑 축전 설명회 1회 이상 개최.
- 4월 15일 ~ 방북 전까지

3) 각 연맹, 지역본부별 참가단 참가교육 이수; 교육 담당 - 각 연맹, 지역본부별 통일위원회
- 4월 15일부터 ~ 방북 전까지

4) ≪민족21≫에서 제작한 ≪아리랑≫축전 안내책자 배포
- 40페이지 분량의 전면 칼라 홍보책자(권당 3,000원 예상)
- 4월 8일부터 각 연맹, 지역본부별로 신청을 받아 배포 시작

5) 각 연맹, 지역별 아리랑축전 포스터 부착; 현재 ≪통일연대(02-831-6822)≫에서 직접 주문 보급 중.

6) 당국의 방북승인절차가 불가피한 현재의 조건과 미국 부시의 의도적인 정세 긴장을 주동적으로 완화시켜 내기 위한 이번 방북의 정세 상의 특징을 감안, 참가단 일부의 불허 시에도 방북 승인자를 중심으로 참가단을 재편성, 기층 조합원 동지들의 방북 염원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7) 단, 미국 부시의 대북 핵공격 위협,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내정간섭 등으로 인해 정세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을 시에는 ≪아리랑≫축전 관람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관련자 신병인도 또 거부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8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법무부는 지난 16일 서울 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한강독극물방류사건 책임자인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 피고인 맥팔랜드의 신병을 한국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한국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을 깔보고 멸시하는 양키침략자들의 오만방자한 태도에서 비롯된 또하나의 용납못할 적대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독극물방류사건으로 말하면 지난 2000년 2월 미8군 용산기지에서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연계된 하수구를 통해 대량 무단방류한 사건입니다. 한강이 우리 국민의 생명수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우리 국민의 명줄이 걸려 있는 생명수에 독극물을 마구 쏟아붓고도 이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할대신 그 범죄자 신병인도마저 거부하면서 형사재판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며 우리 국민을 심히 모독해나섰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한 모욕과 멸시가 없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식민지지배가 가져온 필연적 귀결입니다. 바로 미국의 식민지지배하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양키침략자들의 멸시행위는 그 어느 하루도 그칠새 없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있는 양키무리들은 우리 국민을 오리로, 들쥐로 모독하면서 과녁의 상대로 삼아 무참히 학살하고 우리 여성들을 노리개로 치부하며 강간, 살인, 폭행만행을 일삼는가 하면 이 땅의 120여곳에 8000여만평에 달하는 지역에 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각종 폐기물들을 마구 내버리면서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내걸고 범죄자처벌은커녕 응분의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한강독극물방류사건과정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이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모든 범죄의 주범일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멸시와 인간증오사상이 꽉들어찬 가장 극악한 **주의자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나 미국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양키침략자들의 온갖 수모와 멸시만을 감수하며 살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이같은 철면피한 강도적 행위들을 똑바로 보고 거족적인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불행과 고통의 화근을 없애야 할줄로 압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응분의 사죄와 보상을 해야하며 범죄자들의 신병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키는 것이 좋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BBC의 ≪모두 죽여라!≫ 마침내 국내방영

미군의 한국 양민학살 61건 폭로

한국전쟁당시 노근리 학살사건 등 미군의 전쟁범죄 행위를 폭로한 영국 BBC의 다큐멘터리프로그램 ≪Kill껶m all(모두 죽여라)≫이 마침내 오는 27일 오후 10시 EBS TV를 통해 국내에도 방영된다.

EBS는 16일 시사다큐 ≪움직이는 세계≫시간에 ≪BBC특별다큐멘터리－노근리보고서≫라는 부제로 노근리학살과 한국전쟁당시 미군범죄들에 대해 다룬 이 다큐멘터리를 긴급입수해 방영키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1일 BBC 역사다큐멘터리프로그램 ≪타임워치≫를 통해 방영된 뒤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한・미 정부가 합동조사와 공동발표문을 통해 주장했던 ≪공식적인 학살 명령은 없었다≫는 주장을 뒤엎는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과 미국립문서보관소의 공문서 발견 등을 발굴했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모든 피난민의 전선통과를 금지한다. 전선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포하라. 여자와 어린이의 경우는 신중히 판단하라≫는 요지의 그동안 없어졌다던 미군의 공문서가 최초로 공개됐다. 또한 한국전쟁당시 포항인근의 해안에서 미 해군함정의 발포로 4백여명이 학살된 사실과 미 공군이 육군의 요청으로 민간인에게 기총소사를 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한국전쟁때 미군이 저지른 학살사건은 현재 61건이나 되나, 그중 미국정부가 학살행위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한 것은 ≪노근리학살≫ 한 건 뿐이다.

방송계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노근리학살에 관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중 가장 중립적인 시각에서 사실(fact)에 입각하여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는 EBS의 ≪움직이는 세계≫는 국내 방송에서는 드물게 진보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시각의 해외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미PD는 ≪교육방송이 보도기능이 없는 채널이라 (정치권 등에) 얽매이는 점이 적어 가능하게 된 편성≫이라고 말하고 ≪늘 보편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전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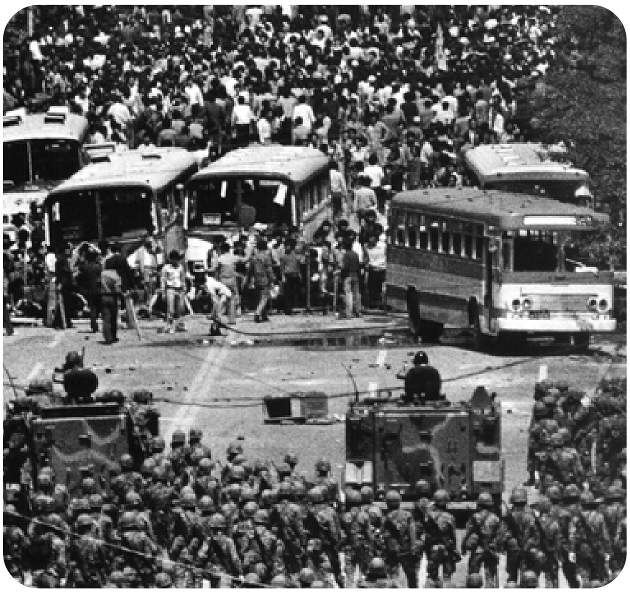
다큐멘터리의 제목 ≪모두 죽여라≫는 학살당시 한 미군 사병이 장교에게 들었다는 ≪모든 것을 향해 발포하라, 모두 죽여라(Fire on everything, Kill≫em all)≫라는 명령에서 따온 것이다.

손봉석 기자
2002/03/16 프레시안

≪오월 시민법정≫에 미국 세운다

오는 5월 18일 시민법정 개최





80년 광주 학살의 배후자로 지목돼온 미국을 심판하는 시민법정이 오는 5월 광주에서 개최된다.

80년 당시 미국의 신군부와의 결탁, 항쟁 진압과정 개입 등은 이미 학계에서 제기돼왔던 문제다. 시민법정을 계기로 수그러졌던 미국의 개입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5·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 발기인단(이하 발기인단)≫은 14일 오후 광주YMC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살 명령 및 방조죄와 직접학살 예비 음모죄로 광주학살의 실질적인 책임자들을 심판하는 시민법정을 오는 5월 18일 광주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조비오 신부는 ≪이번 시민법정은 미국이 인권과 평화라는 이름하에 자행해온 만행을 심판하고 미국의 만용과 치부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실은 밝혀지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다≫며 ≪이는 5·18을 독재정권과 관계로 의미를 축소시킨 면도 있지만 한국 민중의 힘을 보여준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5·18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진상규명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광주학살에 깊숙하게 개입한 미국의 책임을 물어 광주시민과 전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기인단이 시민법정에 세울 피고인은 최종 명령권자로 카터 행정부(당시 미 대통령 지미 카터), 배후조종자로 홀부르크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현지 집행인으로 워컴 주한미군사령관·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동족 학살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명이다.

시민법정은 5·18 유족과 피해자 등이 원고가 되고 램지 클라크(74, 전 미 법무장관) 등 양심적인 전문가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또 피고인을 대신해 ≪미국 책임론≫에 대해 반박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글라이스틴이나 워컴 등의 당시 발언내용과 영상자료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96년 5·18특별법 제정되고 신군부 세력에 대한 평가와 처벌은 일정 부분 됐지만 그 배후에 있었던 미국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시민법정을 통해 사실주장, 법리공방, 엄격한 증거자료를 통해 권위있는 판결로 미국의 책임을 심판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법정에서는 지난 96년 공개된 한국 관련 극비문서 1749건 중 80년 5월 22일 백악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내용과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과 미 국무부 홀부르크 차관보 사이에 오간 비밀전문 내용 등도 근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다.

≪시민법정 추진위원회≫ 발기인단에는 조비오, 송기숙, 문병란 씨 등 광주지역 원로들과 민변, 전국연합, 통일연대 등 전국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107명이 참여했다.

구성될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법조계는 물론 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해 미국 책임론을 물을 근거자료를 수집, 분석함과 동시에 오는 4월에 주한 미 대사관을 상대로 이에 대한 미국측의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책임론≫에 대해 글라이스틴 등 미 행정부는 ≪광주진압을 위해 한국군부가 요청한 20사단의 이동요구를 승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지극히 제한적인 것이었으며 20사단 이동승인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등의 논지로 책임론을 반박하고 있다.

강성관 기자
2002/03/15 오마이뉴스



부산대총학, 미제품 불매운동 동참

과학생회장들, 맥도날드앞 1인시위

맥도날도 안가기운동, 미국영화 보지말기…

미국미국반대를 외치며 네티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제품불매운동은 예전 한총련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 외치던 ≪주한미군철수하라≫ 등 구호식의 운동과는 다른 방식이다.

80, 90년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소수의 사회단체에서만 예기되던 ≪미국반대≫라는 구호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얘기가 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불매운동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부터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효진(전기전자정보컴퓨터공 1)씨는 ≪지난해 9.11테러사건이나 최근의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동계올림 메달사기사건 등을 거치면서 더욱 반미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실제 이런 반응은 예전에 비해 학생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어 가도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미국제품불매운동이라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맥도날드나 미국제품을 사는 것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다≫라는 김성환(경영 00, 휴학)씨의 말은 조금씩 반미에 대한 의식들이 사람들에게 높아져가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이 같은 학생들의 반응에 힘입어 34대 동고동락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윤용조, 철학 4)에서도 학생들의 미국제품불매운동에 적극 동참 하여 미국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민족효원 맥도날드 안가기 주간≫을 정해 한 주동안 집중적으로 미국제품불매운동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또 ≪미제 안쓰기 스티커≫ 내 사물함에 붙이기 운동을 계획 중이며, ≪미국제품 안쓰기 운동 수기≫나 ≪반미 영상물≫, ≪문예≫등을 공모하고 있다. 이런 학내의 흐름들을 4째주 단과대학출범식과 총학생회 출범식 공간에서 모아갈 예정으로 과학생회를 중심으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앞서, 공대 과학생회장들의 일인시위가 지난 11일부터 점심시간 12시부터 한시간동안 학교앞 맥도날드앞에서 진행중이며, 동아리연합회에서는 14일 막도날드단(막자! 맥도날드!)을 구성하여 맥도날드 불매 선전전을 펼쳤다.

국어교육과 성정림(3) 학생회장은 ≪전반적으로 새내기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미국제품불매운동에 대해 조금은 낯설어하지만 그 취지나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토론을 가져갈 생각≫이라며 ≪우선 방법적으로 다함께 만들어 가는 형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반미의식에 따른 미국제품불매운동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지적도 일고 있다. ≪단순히 민족주의적 감정에 치우쳐서 미국제품불매운동의 본질이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것만으로 반미운동을 평가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이런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미국제품의 부당한 상업행위와 그로 인한 노동자, 농민들의 피해를 알려나가고 있으며 미국제품불매운동의 본질적인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네티즌 사이에서는 그전까지 논의가 되지 않던 F-15k기 무기구입반대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 군수산업자본에 대한 비판과 전쟁확산금지 등 미국제품불매운동의 내용적인 부분들이 채워져가고 있다.

미국제품불매운동. 그 동안 헐리우드영화 보지 않기, 성조기 티셔츠 입지않기 등 몇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그러든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민족적 감정에 얽매인 감정적인 대응만이 아닌 미국의 거대한 자본의 횡포에 반대하는 저항으로 좀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부산대 정우윤 기자

2002/03/14 유뉴스

시민단체. 대학가, 미국상품 불매운동 전개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대학가에서 미국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YWCA와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등 9개단체는 18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부산시민대회≫를 열고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등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미국이 힘을 앞세워 F-15 전투기의 수입을 강요하고 철강제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WTO의 세계무역질서를 파괴하는 무역전쟁을 선포했다≫며 ≪이에대한 자위권의 일환으로 여성과 청소년, 청년학생,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으로 미국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조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부산시민통일운동연대도 16일과 17일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옆 맥도널드 가게 앞에서 ≪무기강매와 전쟁, 한·미·일 군사훈련 반대 시민행동 선포대회≫를 가졌다.

또 부산대 총학생회는 지난 11일부터 학교정문 앞 맥도널드 가게앞에서 ≪미국 반대.맥도널드 불매 운동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조정호 기자

2002/03/18 연합뉴스



≪F-15K, 라팔 다 필요없다≫

F-X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 열려

≪라팔이 F-15K보다 성능이 좋다고 도입하자는게 아닙니다. F-15K든 라팔이든 다 필요없으니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승헌 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은 15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열린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혈세로 전쟁무기를 도입하려는 F-X사업 자체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즉각 석방과 F-X사업 전면 철회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우리는 신원이 명확하고 도주위험이 없는 조주형 대령의 석방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기도입을 중단하고 군축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국방부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F-15K를 고집하면서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하수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국방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F-15K 도입사실에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남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시기에 전쟁무기도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통일의 기운을 꺽는 것≫이라며 F-X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결의문 낭독에 이어 서경원 자통협 상임고문은 규탄연설을 통해 ≪지금 국방부에서는 미국과의 작전 운용능력을 구실로 F-15K를 도입하려 하지만, 미국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50여년 전 이 땅을 갈라놓은 38선을 그은 나라≫라며 미국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경원 상임고문은 ≪지금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도 미국이 30년된 고물 비행기를 우리나라에게 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있다≫며 ≪국방부는 무기도입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접수시키고 29일로 예정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일까지 더욱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다짐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동계올림픽 편파판정으로 높아져있는 국민들의 반미감정과 조주형 대령의 국방부 외압폭로등 안팎으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3/15

F-15K 도입반대 2차 집중투쟁 시작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실무협상을 앞두고 각계에서 정부와 미국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20일 오후 1시 반,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사회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주최하는 ≪차세대 전투기(F-X) 도입 사업 중단, F-15K 전투기 도입 반대를 위한 제2차 국방부 앞 집중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이번 집중투쟁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1차 집중투쟁에 이어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의 농성투쟁과 매일 오전 8-9시, 12-오후 1시, 오후 5-6시에 진행되는 1인 시위, 그리고 26일 낮 12시에 열리는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자통협 이형수 투쟁부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투쟁 선포식에서 임종철 평통사 공동대표는 ≪국방부가 문정현, 문규현 신부와 F-X사업의 비리를 폭로한 조 대령이 친인척이라는 사적관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진실을 밝힌 사람을 잡아간 국방부가 진짜 문제≫라며 ≪국방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의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갇혀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철 공동대표는 ≪김동신 국방부장관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아버지 때부터 가신과 같은 관계를 가져왔고, 한국 고위 정치인들이 미국에 갈 때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폭로하고 ≪김동신 국방장관이 제정신이 있다면 F-15K 구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은 ≪대규모 한미공동군사훈련은 한국민의 반미투쟁이 활화산처럼 터져 올라오니까 한국군 50만을 ≪열차려≫시키는 것이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을 ≪열차려≫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F-X사업과 관련해 ≪김대중 대통령이 뭔가에 가위눌려있는데 이부영 의원 등의 조정안을 못 받는 것으로 봐서 미국과 이미 약속을 했고 요만큼의 권한도 없는 모양이다≫고 비꼬았다.

≫이달말 F15K로 기종선정을 확정하고 미군기지 조정도 할 예정인데 용산미군기지 반환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아파트와 고가도로 신설만 확정되어 있다≫며 집중투쟁기간 열심히 투쟁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집회와 함께 진행된 국방부 정문 앞 1인 시위에 나선 정혜열(68, 여) 평통사 회원은 ≪F-15K가 들어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하며 ≪딴나라의 전쟁위협도 아닌 우리 동족끼리의 전쟁을 위해 무기도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치관 기자
2002/03/20 통일뉴스

수 조원대 무기도입사업 더 있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인 ≪F-X≫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형무기도입 사업은 F-X 사업에 가려져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F-X 사업 규모가 당초 4조2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가량 늘어나게 됨으로써, 여타 무기도입 사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F-X 사업 규모가 늘어남으로써 일정 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착수하기로 했던 1조8천억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사업은 엄청난 환차손을 비롯한 예산 압박으로 착수시기를 2005년으로 연기해 2011년경에 전력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진통을 거듭하던 2조원대 규모의 차세대 공격헬기(AH-X) 도입 사업도 올해 착수되는 7500억원대의 다목적헬기 개발(KMH)사업의 진행 상황을 봐가며 추진여부를 검토키로 하고, 일단 연기되었다.

그러나 F-X 사업 및 AH-X 사업과 함께, 4대 전력증강사업으로 일컬어져온 차기방공망 사업(SAM-X)과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KDX-Ⅲ)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각각 2조 3천억원과 2조 8천억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F-X 사업을 능가하게 된다. F-X 사업 못지 않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인 것이다.

MD의 ≪늪≫으로 가는 길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무기도입사업을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안보상의 필요보다는 한미관계의 정치적인 고려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F-X 사업은 물론이고, 다른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도 잘 나가고 있는 SAM-X와 KDX-Ⅲ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부시 행정부가 신전략구상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작년 12월 중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미사일의 발사율이 8%에 불과하다는 ≪군사기밀≫이 유출・보도되면서, 국방부는 한편으로 ≪나이키 미사일이 그 정도로 고물은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할 패트리어트 최신 개량형인 PAC-3를 서둘러 도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국방부의 대책을 통해 고물 미사일 논란을 가라앉은 바 있다.

그러나 SAM-X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PAC-3 도입은 단순히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사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고물 나이키 미사일에 쏠리게 하고 MD 참여의 첫발을 내딛는다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사업이다.

PAC-3는 현재 미국이 유일하게 개발 완료한 MD 무기체계로서, 한국이 이를 도입할 경우 한미연합전략 MD 체계의 일부로 활용될 무기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MD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의 전투체계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이지스 체계와 네덜란드 탈레스의 아파르(APAR) 체계는 모두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도입예정인 전투체계에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스탠다드 미사일-2(SM-2) 블록4≫ 이상의 미사일이 장착될 경우, 이 사업 역시 MD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은 ≪해군의 작전성능요구에 탄도미사일 요격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는 기밀에 해당되는 사안임으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미래 전략환경을 대비하는데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함으로써 KDX-Ⅲ 사업이 MD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도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는 한국에 이지스 전투체계 3척을 일괄판매하기로 했다고 의



회에 통보하면서 ≪이 시스템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한국의 이지스함 도입 사업이 MD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보다 더 불투명할 수는 없다

F-X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대단히 크고, 4개의 후보 기종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온 것이 밝혀지는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나마 적지 않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왔다.

그러나 그 파장에 있어서 F-X 사업을 훨씬 능가하고 그 예산도 결코 적지 않은 SAM-X와 KDX-Ⅲ 사업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과 관련해 ≪고물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PAC-3 도입이 필요하고, 대양해군과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지스함 도입이 절실하다≫는 얘기 이상으로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PAC-3 도입이 MD 참여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제기에 대해 국방부의 첫 번째 해명은 ≪PAC-3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였다. 그러나 PAC-3가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성능 개량된 것임을 입증하자, 국방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는 것과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대해 한미군사동맹 구조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냐는 반론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답변은 없다.

이와 같은 국방부의 일관성 없는 해명은 이지스급 구축함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관계없다≫고 말하다가, 도입 예정인 전투체계가 탄도미사일 요격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해명을 요구하자, ≪군사기밀≫이라며 확인도, 부인도 해주지 않고 있다. 한 군관계자도 시인하고 있듯이, 확인도 부인도 안하는 것은 사실상의 시인을 의미한다.

침묵의 카르텔을 깨자

작년 12월 20일 평화네트워크에서 입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마이뉴스가 최초 보도한 한미연합 차원에서 만들어진 ≪MD 기구≫의 실체는 이후 연합뉴스 등의 취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오산 미공군 기지에 이 기구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구의 존재 확인은 한국의 MD 관련 무기체계의 도입 및 미국의 MD 무기체계 한국 내 배치 계획과 함께, 한국이 비밀리에 MD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이 아닌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동안 김대중 정부가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현재는 MD에 통합되어 있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이 ≪남한이 MD에 참여할 경우 사태는 매우 복잡하고 엄중해질 것이며 민족의 장래가 위태롭게 될 것≫(노동신문 2002년 1월 14일)이라고 경고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남북관계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대중 정부의 MD 불참은 대북포용정책의 중요한 전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MD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MD 참여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철저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기밀로 묶어놓으면서 추진하고 있는 MD 관련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MD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것을 주문하는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해왔다. 한 의원 보좌관의 ≪정부여당 내에서 MD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게 좋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볼 뿐이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집권시 MD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MD 참여가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MD에 참여하는 것이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경제적 부담과 남북관계 및 대중, 대러 관계만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김대중 정부의 당초 약속은 그냥 공약(空約)으로 넘길 사안인가?

MD가 새로운 군비경쟁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친다는 문제의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인가? 부시 행정부가 MD 구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에 집착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거꾸로 돌린 것을 잊었는가? 남한의 MD 참여가 분명해질 경우 중대한 사태가 올 것이라는 북한의 경고는 상투적인 말에 불과한가?

내년부터 한반도에 배치될 미국의 MD 무기들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 5조원이 넘는 돈이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되지 않은 채 MD 관련 무기 구매로 사용되는 것은 그냥 눈감고 넘어갈 사안인가?

PAC-3 도입은 이미 결정되었고, 이제 가격협상만 남아 있다. 이지스함 전투체계 기종도 5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이상하리 만큼의 침묵 속에 MD의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사안들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정욱식 기자
2002/03/19 오마이뉴스

각계 친일파청산운동 활발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0일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각계에서 국회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이 708명의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명단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친일파들을 청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굴욕과 수치, 수난과 고난으로 얼룩진 민족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의 반일감정에도 부합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친일파들은 일제시기 수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고문, 학살하는데 앞장섰고 일제의 간악한 식민지통치의 하수인으로써 수족노릇을 해온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친일파들은 민족과 겨레앞에 저지른 커다란 범죄로 하여 8.15광복이후 응당 청산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6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 오늘까지도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일파청산이 지금껏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역대 위정자들의 친일사대매국적인 정치행태 때문입니다. 그로하여 실질적으로 지난날 반민족친일행적을 가진 자들이 지금도 무난히 정계와 사회에 포진해있거나 또 후손들이 늘어나 애비들처럼 민족반역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의 경우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1920년대부터 일제 검찰기관에 종사하면서 항일독립운동자들을 밀고, 처형하고 반일운동과 계몽운동을 탄압하는데 특출한 공로를 세운 특등친일주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등 친일역적이 8.15이후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요직을 차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말년에는 큰 포상까지 여러차례 받았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애비와 함께 청산됐어야 할 친일역적의 아들인 이회창이 정계에 돌아치며 민족반역행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매국으로 출세한 애비의 핏줄을 타고 호위호식하면서 애비처럼 법관의 감투를 쓰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앞장선 의로운 인사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구속, 고문, 학살케한 이회창은 지금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행위들을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과 이회창과 같은 그 후예들이 계속 이 땅에서 활개친다면 우리 민중의 자주적 존엄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이 땅이 미일의 속국으로써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이회창을 비롯한 친일족속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당파와 소속, 정견의 차이가 따로없고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참해야 할 전국민적 애국투쟁입니다. 누구든 민족정기를 잃고 제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각계 민중은 친일파청산투쟁을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간주하고 친일파청산투쟁과 친일역적의 후예인 이회창을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통일운동단체 회원 연행 규탄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통신검열 반대! 이재윤을 석방하라!!

3월 19일 오전 9시경 천안지역 민간통일운동단체 ≪통일로 가는 길≫의 회원인 이재윤 (광고기획업, 38세)씨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연행되었다. 연행 사유는 이재윤씨가 ≪북한사랑≫, ≪통일로 가는 길≫ 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간에 의견을 주고받으며 올린 글이 북을 찬양 고무한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이다. 국정원은 이재윤씨의 자택은 물론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여 ≪통일로 가는 길≫ 회의자료 등 순수한 단체활동을 위한 자료들까지도 압수해갔다. 현재 연행되어간 이재윤씨는 국정원 본원(서울)에서 조사 받고 있다.

천안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민들의 통일의 의지를 담아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는 ≪통일로 가는 길≫회원에 대한 연행과 회의자료 압수는 민간 통일운동의 탄압이며 명백한 6.15공동선언 위반행위이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과 북의 수많은 이들이 금강산과 평양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주며 통일을 하자고 하였다. 통일을 하기 위해 서로를 위해주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윤씨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이북을 고무 찬양한다고 해서 연행해간 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작태임이 분명하다.

부시가 이북을 자극하며 전쟁놀음에 미쳐있는 이 때, 곧 있으면 한미전시증원훈련 (RSOI)이라는 전쟁연습이 21일부터 진행된다. 이는 결국 6.15공동선언을 폐기처분 하고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을 몰고 오고자 하는 미국과 미치광이 부시의 의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고 하며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통일적인 행위 일체를 거부하는 7천만 민족전체는 민족의 힘으로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는 노력들로 모두 분주하다. ≪통일로 가는 길≫도 천안지역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으며 6.15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갖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국정원은 한 회원을 국가보안법으로 걸고들며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단체에 대한 색깔을 흐리게 하고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단독재의 찌꺼기를 먹고 살던 안기부가 국민의 정부에 와서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성은 아직도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민족의 평화와 통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기운에 빌붙어 언제라도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부시와 미국의 의도대로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일에 충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통신상에서 서로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검열하며 구시대의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이재윤씨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권탄압 이다. 때문에 국정원이 이미 사문화 되어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연행한 것은 분명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반인권적 범죄행위며,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심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 행위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이후 남과 북의 노동자, 농민, 학생, 문학인, 종교인 등 자기 계급 계층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경의선 복원사업을 통해 육로가 개방되려는 지금 시기에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정견을 탄압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이며, 분단의 세기를 넘어 자주와 평화통일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즉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국정원의 이번 작태는 이재윤씨의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자,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6.15 공동선언이후 조성된 통일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각인 것이다.

지금 당장 국정원은 이재윤씨를 석방하고 통일의 역사에 역행하는 반인권, 반통일적 범죄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이 민족의 실리를 추구하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철폐되어야 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반통일 행각을 일삼는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 이 땅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다가올 것이다.

우리는 정보검열에 의한 인권침해 반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철폐,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적 폭압기구인 국가정보원 해체와 이재윤씨 석방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든 노력과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6.15공동선언시대에 국정원은 필요없다. 반통일 범죄집단 국정원을 해체하라!
- 6.15공동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6.15공동선언 파괴하는 반통일범죄집단 국정원 유지법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이재윤씨를 즉각 석방하라!
-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각계각층은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범죄집단 국정원을 해체하고,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시키자!

▣ 이재윤 석방대책위

■ 천안아산통일연대 : 통일로가는길, 천안농민회, 전교조 천안초 중등지회, 전교조 아산지회,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충남 일반노조, 천안 KYC, 나눔터, 소리여울, 아산농민회, 단국대 민주동문회, 단국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호서대동아리연합회

■ 안티조선 천안아산연대, 민주노동당 아산지구당,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공주농민회,

■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천안을지구당, 신바람

■ 범민련대전충남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충청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 대전충남통일연대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시지부, 민주화정신계승 대전충남, 연기사랑청년회, 통일아리청년회, 대전가톨릭청년회(준), 남북공동선언실천대전충남연대, 범민족운동본부, 대전참사랑일꾼회, 전대기련충남지부, 한겨레독자주주모임, 대전양심수후원회, 대전민가협, 배재대민주동문회, 애국지사숭모회, 전교조 충남지부

한총련을 찾아온 봄소식

한총련 합법화 사회인 대책위 발족해

1997년 이후 이적단체 규정으로 수배와 구속의 추운 겨울을 지내왔던 한총련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졌다.

20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사회각계 단체.인사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발족식≫이 열렸다.



권오헌 대책위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젊은이들을 감옥으로 내모는 한총련 이적규정은 야만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이적규정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권오헌 상임대표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여러 인사들을 만났지만, 한 분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시대적 요망인 한총련 합법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이어 강위원 대책위 집행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대법원을 통해 이적규정 판결을 받은 것은 5기 한총련뿐이지만, 검찰의 임의적인 법적용으로 10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1254명의 한총련 학생이 구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강위원 집행국장은 ≪6년동안 대학생들을 끊임없이 전과자로 내몬 것은 우리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뜻≫이라며 ≪한총련 합법화가 대학생의 건강성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회각계 어르신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을 마쳤다.

함세웅 대책위 상임대표가 낭독한 발족선언문에서 대책위는 ≪한국의 청년학생들은 세계역사의 대표적 자랑이자 한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구속과 수배의 고난의 길을 걷는 반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부모된 심정, 선배된 마음으로 미래사회의 희망인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을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범사회인 대책기구를 결성하고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우리 사회의 양심적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발족선언문 낭독 후 윤경회 10기 한총련 대변인(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한총련 스스로도 강령과 규약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총련이야기

희망의 길은 멀지 않다

004 책을 열며

한총련 고난사

한국판 주홍글씨, 이적단체 규정

대책위는 바로 이어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구속·수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10기 한총련의 합법활동 보장 ▲10기 한총련 대의원의 수배, 구속조치 반대 ▲97년 이후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조치 해제와 관련자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오늘 발족한 한총련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단체 대표들이 고문과 상임 및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민변 17명의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하며, 한총련 합법화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625명이 대책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로써 인권유린과 국가보안법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던 한총련 이적규정이 97년 이후 6년만에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동렬 기자
2002/03/20 통일뉴스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 나서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1일~12일

이번엔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신은경씨 얘기 주시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민주노총은 정부의 재계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노동법개악안의 철회를 주장했고 비정규직의 희생없는 주5일근무제를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법개악안 철회투쟁에는 현대중공업 등 대형노조를 포함해 전국의 170여개 사업장들에서 수만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악하려는 노동법에는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주40시간근무제도입에 관해서는 일절 반응조차 없고 근로자의 휴일, 휴가특수와 같은 노동자의 권위를 침해하는 악법조항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노동법이라고 하면 근로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 보호수단을 강구하며 또 노동쟁의나 노동운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말하자면 노동자의 권위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만든 것이 바로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악덕업주를 보호하고 그의 **를 위한 법으로 되고 있어 그 가치가 사실상 전도되어 있어요. 그건 이 땅의 노동법이 자본의 유도때마다 노동자의 대량해고, 비정규직증대, 후생복리후퇴를 비롯해서 노동강도, 노동통제를 강요하는 것과 같은 노동자 희생을 목적으로 재개악되어온 사실들이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는 이 땅의 노동관계법을 두고 반노동자적인 악법이라고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노동법개악안도 노동자를 사람으로가 아니라 돈버는 수단으로, 말하는 기계로 치부하는 관계당국과 악덕업주들에 의해 더욱 철저히 반노동자적인 악법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 1300만 노동자대중은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에 모두 분기해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한 겁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비롯한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말살하는 현행 노동법상의 온갖 독소조항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원칙에서 노동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주40시간노동, 8시간 이상의 연장노동금지 등 최고노동시간의 설정을 통한 노동시간의 제재, 적정수준의 생활임금지급,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지급, 노동시간단축때와 쟁의기간중 생활수당저해금지, 직업병 및 산재방지대책과 보상지정, 부당해고방지와 실업수당제의 실시 등을 법적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엄하게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삽입해야한다는 거예요. 특히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위를 보호하는 특별조항들을 첨부해야한다는 겁니다.



노동자대중은 이와 같은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법적 보호조항들과 함께 노동법이 철저히 노동자들의 민주민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정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그것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정확히 규정돼야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조본연의 사명이고 고유한 기능의 하나인 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건 물론 노동자들 자율위에 스스로 노조를 설립하며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노조설립의 자유, 노동자와 노조가 연대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가 법적으로 찍혀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돼야 우리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업주들이 무제한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강력한 투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적으로 더러운 유착관계를 맺어온 권력은 우리 노동자대중의 이 정당한 주장과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려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1300만 우리 노동자들과 그 가족모두가 분기해 이번 노동법개악안을 철회시키고 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노동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노동법문제의 실제적 주인도 우리 노동자대중이고 노동법개정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도 다름아닌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대중은 더이상 물러설 수 없는 노동법개악 철회투쟁에서 권력과 자본에 격노한 노동자투쟁위력을 다시한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 매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전소 매각 미루고 국민합의를 86.2%
외국자본과 재벌에 팔지 말아야 81%
매각하면 요금인상 63.6% 공익기능 축소 60% 전력부족 40%
기간산업 민영화 찬반 50% 대 43% ≪팽팽≫
파업 강경대응 반대 대화로 풀라 84%

1. 국민의 86.2%는 발전소 매각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므로 현 정부 임기 내 매각 계획을 미루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력생산의 60%를 담당하는 화력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재벌에게 파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는 17일 ≪발전소 민영화에 대한 전 국민 여론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발전노조 파업으로 불거진 발전소 매각 문제를 둘러싼 첫 국민여론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2. 이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발전소를 외국자본이나 국내 대기업에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데 대해 81.0%가 반대한 반면, 찬성은 14.6%에 불과했고, 4.4%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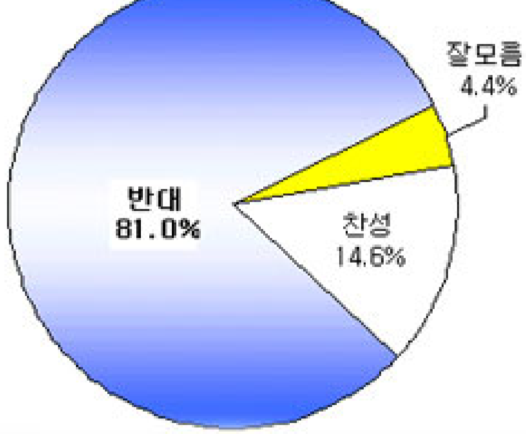
또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적자운영과 비효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견해가 50.6%로 나타났지만, 다소 문제가 있어도 공익성이 큰 기간산업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견해도 43.9%에 이르러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소 매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된 만큼 현 정부 임기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12.0%만이 찬성한 반면,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니 매각 계획을 보류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는 무려 86.2%가 찬성했습니다.

나아가서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량해임과 구속, 손배 청구, 경찰병력 투입 등 강경대응하는 데는 14.2%만이 동의했고, 84%는 정부와 노조가 즉각 협상을 다시 시작해 대화로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국민들은 발전소를 팔고 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공익기능이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전력대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력발전소를 국내 대기업이나 외국 자본에게 팔고 그들로부터 전기를 사서 쓰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63.6%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한 반면, 기업간 경쟁으로 경영의 효율성을 이뤄 요금이 내릴 것이라는 데는 13.9%에 그쳤으며,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이라는 의견은 19.6%였습니다. 매각되면 산업용 · 농촌 · 낙도의 전기요금 할인 등 공익적 기능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60.1%가 동의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데에도 33.8%가 찬성했습니다. 전체의 50.8%가 매각 후에도 민간자본이 수익성 높은 전력산업에 적극 투자해 전력부족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를 꺼려 전력부족 사태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0.8%에 달했습니다.

4. 이번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가 민주노총의 의뢰를 받아 3월13일부터 15일 사이에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성, 연령별 할당 무작위로 추출한 2002년 3월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 신뢰도 95%에 오차범위는 ± 3.1%입니다.

한길리서치
2002/03/18

민주노동당 새대표 권영길씨 선출

창당 2주년 맞아 전당대회 개최

민주노동당은 지난 16일 서울 광진구 능동소재 리틀엔젤스회관에서 2002년 정기 당대회를 개최하고, 권영길 후보를 새 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당대회에서는 총 대의원 600명 중 450명이 참가해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경선을 통해 당대표를 선출했다. 투표결과 기호 1번 권영길 후보가 294표, 기호2번 정윤광 후보가 131표를 얻어 권 후보가 새 대표로 선출됐다.

당 부대표에는 김태일, 김혜경, 천영세, 최순영씨가, 사무총장에는 노회찬씨가 각각 선출됐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양대선거 방침과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를 총 망라한 ≪민주진보진영의 양대선거 승리를 위한 범국민대책기구≫를 구성키로 방침을 정하고, ≪10만 범국민추진위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이날 당대회는 전국에서 1,000여명의 대의원과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진행중인 발전노조 투쟁 연대와 다가오는 양대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17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창당 2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당대회 결정사항 확인과 당원 시상식 및 문화행사를 가졌다.

지난 2000년 1월 30일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창당 때보다 당원과 지구당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큰 성장을 해 왔다. 창당 초기 당원은 8,000명이었으나 현재 22,000여명에 달한다. 지구당도 초기 34개에서 94개로 크게 늘었다.

올해 들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이자제한법과 같은 정책활동을 통해 기존의 정당과 차별화된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용산미군기지 반환,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국민적 현안문제에 대해 정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준희 기자
2002/03/18 디지털말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오늘에 다시본다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7일~18일

그럼 이 시간에 먼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을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진명씨 자리 함께 했습니다.


불타고 있는 부산 미문화원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3월 18일은 부산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방화투쟁을 벌인 때로부터 20돌이 되는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20년전의 그날을 회고하면서 반미투쟁의 열풍을 더 거세차게 일으킬 의지를 가다듬고 있는데요. 애국청년학생들이 부산미문화원에 지른 방화의 불길은 성스러운 반미봉화였고 더이상 미국의 식민지노예로 살지않으려는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지향의 봉화, 자주와 민주의 여명을 안아올 희망의 봉화였다고 할 수 있죠.
그때를 생각할수록 감회가 깊은데요. 그럼 먼저 당시 애국청년학생들이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지르게 된 동기라고 할까요. 이에 관해서 알아봤으면 하는데 말씀좀 주시죠.
유진명 : 그때를 회고할수록 애국청년학생들의 애국적 장거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어떻게 그런 성스러운 일을 단행했는가고 국민들 모두가 탄성을 올렸는데요. 물론 반미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실행할 결단을 내린다는 건 쉽지 않죠. 이런 의미에서 볼때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참가자들이야말로 반미투쟁의 선봉투사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들이 벌인 방화투쟁의 직접적인 동기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 우리 국민에 대한 식민지노예화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였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은 이 땅을 강점한 이래 근 40년동안 우리 국민의 자주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해왔던 거예요. 우리 민중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로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주권쟁탈, 악랄한 경제적 침탈, 살인적인 학살만행 등 미국이 감행한 온갖 범죄행위가 바로 부산미문화원방화를 불러온 동기였습니다.
사회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에서 주역이였던 문부식씨의 법정진술에서도 그대로 표현됐고 당시 부산미문화원 주변에 살포됐던 삐라들에도 밝혀져 있었죠.
유진명 : 문부식씨는 법정진술에서 이렇게 토로했어요.
≪우리들의 역사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정치악 속에는 언제나 미국이라는 시어머니가 이 땅의 독재자들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예요. 그리고 곳곳에 살포된 삐라들에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 ≪한반도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미국의 죄행과 한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규탄한다!≫,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미국세력의 대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 ≪양키는 물라가라!≫, ≪먼저 미국문화의 상징인 부산미문화원을 불태운다!≫ 등이 당시 삐라들에 실렸던 내용이였어요. 이것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우리 민중의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회자 : 우리 청년학생들, 우리 모든 민중들속에 쌓이고 쌓인 반미감정이 부산미문화원방화로 폭발됐다는 말씀이신데요,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문부식씨 등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참가자들의 의로운 장거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였는지 이에 대해서 얘기가 됐으면 합니다.
유진명 : 그에 대해서는 문부식씨가 최후진술에서 밝힌 바 그대로인데요.
문부식씨는 최후진술에서 10.26 박정희타살후 밝아오던 민주의 여명을 파쑈의 암흑으로 뒤덮게 한 미국의 죄행을 징벌하고 내외에 고발하기 위해서였고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를 세상에 알리고 민중에게 반미투쟁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이런 취지는 앞에서 얘기된 삐라들에도 그대로 밝혀져 있었어요.
사회자 :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단순한 방화사건이 아니고 우리 민중의 반미의지의 분출이였고 사생결단으로 미제침략자들과 싸워 승리하겠다는 결의의 표명이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그후 우리 국민들에게 반미투쟁의 의지를 안겨준 매우 의미있고 정당한 투쟁이였다고 할 수 있죠.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우리 민중은 결코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이 마음대로 착취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민중이 아니라는 걸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한 그런 투쟁이였어요.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데 그 참의미가 있다고 하겠어요.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이후 반미투쟁이 얼마나 활성화됐습니까. 광주미문화원이 불탔고 대구문화원이 폭파됐고 도처에서 성조기가 불타는 등 반미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어요. 부산미

문화원방화투쟁이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에 미친 영향은 정말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얘기된 걸 보면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은 우리 민중의 반미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내외에 과시한 의로운 투쟁이였고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은 어떤 파쇼적 폭거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애국투쟁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애국청년학생들이 지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의 봉화는 90년대, 2000년대로 이어져 더욱 격렬한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승화발전하고 있죠. 오늘날의 반미투쟁은 조직화측면에서보나 투쟁규모와 투쟁형식과 방법, 그 격렬성에 있어서도 지난 80년대, 90년대에 비할 바없이 크게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유진명 : 그렇습니다. 지난 시기에 반미운동, 반미투쟁은 주로 운동대오들, 말하자면 한총련 등 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됐어요. 하지만 오늘에는 운동세력들이 주도하는 반미투쟁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각계층이 적극 합세해나서고 있죠. 반미투쟁이 각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를 조직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적극화되고 있어요. 지난 1999년 노근리학살사건폭로를 계기로 미군의 학살만행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지역시민대책위원회와 지역대책위원회들이 수십개나 조직됐어요. 재야운동단체인 전국연합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를 조직한데 이어 각지역별로 대책위원회들을 조직하고 이를 토대로 전지역적 규모의 반미투쟁대책위원회들을 내왔어요. 그리고 재야단체들의 주도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반미투쟁단체들을 하나로 결집해 통일적인 반미운동연합체를 내오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어 오늘은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조직이 조직되게 됐습니다.

투쟁방법과 형식에서도 종전의 가두시위에 치우치는 형식에서 벗어나 대규모적인 반미집회와 서명운동, 성명과 호소문발표, 국제적 여론환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죠.

사회자 : 부시의 악의 축망언과 부시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땅은 말그대로 반미열풍지대로 전변됐죠.

유진명 : 부시가 이른바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들은 그것을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로 낙인하고 반부시반미투쟁에 떨쳐나섰어요. 심지어 여야당 국회의원들까지 부시가 악의 축이라는 망언을 듣고 나와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것을 반대해 주한미대사관을 항의방문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은 미국이 무기수출에 환장하면서도 악의 축이니 뭐니하고 트집잡아 북을 헐뜯는 것을 비난했고 미국이 한국을 대등관계로 보는가 자기네 식민지로 보는가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전례없는 일이죠.

사회자 : 특히 부시의 행각을 계기로 반미투쟁이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유진명 :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민변, 자통협, 전농, 민언련, 민교협 등 603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대표들은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가지고 부시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규탄했습니다. 또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격문과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부시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반미항전에 부딪쳐 비참한 최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서부총련은 성명을 발표해 부시가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반미투쟁의지를 똑바로 알고 이 땅에 기어들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부시가 이를 무시한채 이 땅에 기어들어 전쟁모의를 벌이는 것을 7천만 겨레는 용서치 않을 것이며 이 땅의 민중들의 분노에 부딪쳐 제 생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부시의 망언과 한국행각을 반대해 700인 평화선언문이 발표됐고 광주전남지역에서는 3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지역에서는 297개 단체, 기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부산에서는 80여개의 시민단체가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규탄하는 기자회견, 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부시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 등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 청년학생들의 기습시위, 성조기화형식, 소형플랭카드게재, 삐라살포, 부시행각노정들에서의 항의시위 등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죠. 우리 국민의 대중적 항거에 부딪친 부시는 순간도 마음을 놓치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다 이 땅을 도둑고양이처럼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말이죠. 부시호전광은 이것을 망각하고 전쟁광신증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전쟁광신자 부시는 악의 축망언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오는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이 땅에서 대규모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벌이려하고 있죠. 얼마전에 드러났지만 북에 대한 핵무기사용계획까지 짜놓고 있는데요. 제반 사실은 부시를 그대로 두고서는, 그리고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무사치 못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진명 : 그렇습니다. 부시가 허장성세하지만 미국은 종이범에 지나지 않아요. 만약 호전광부시가 우리 민족과 세계평화애호세력의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불길에 타죽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더 완강한 반미투쟁으로 부시의 전쟁책동을 분쇄, 격파해버리고 미제침략군을 반드시 몰아내고야 말거예요. 이것은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을 오늘의 시점에서 되돌아보며 우리 민중이 다지는 드팀없는 결의인거죠.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유진명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부산미문화원방화투쟁 오늘에 다시본다, 이런 화제로 유진명씨와 함께 얘기 나눠드렸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이회창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7일～18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 땅의 반미운동사에 커다란 자국을 남긴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2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날을 맞으며 우리 민중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걸 절감하면서 열혈 청년들의 애국적 장거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금 뜨겁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미문화원에 분노의 화살을 터친 애국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 등 그 관련자들이 군사독재집단의 파쇼적 탄압만행으로 처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받고 부당한 옥고를 치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회창이 법관의 감투를 쓰고 사건처리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그럼 먼저 부미방사건으로 알려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김현규 : 당시 이 땅에서는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더욱 노골화됐고 특히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미국은 전두환군사독재집단을 사주해 광주시민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우리 민중은 광주학살을 막후조정한 미국에 대한 원한이 구천에 사묻혀 있었습니다.

또 미문화원은 우리 민중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이 땅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를 직접 집행하는 시설물로써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으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친미군사독재집단에 대한 분노가 부미방사건의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기로부터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방화를 단행한 것은 바로 1982년 3월 18일 오후였는데요. 그때 열혈청년학생들에 의해 미문화원에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 올랐고 잇따라 미문화원으로부터 800미터가량 떨어진 국도극장과 미문화원과 인접한 유나백화점 6층에서는 미국은 더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물러가라는 등의 반미구호와 군사독재집단을 단죄하는 유인물들이 대량 뿌려졌습니다.

불과 20여분동안에 수행된 부산미문화원에 대한 방화는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에 더 큰 불씨를 심어주었고 지구촌에도 커다란 충격파를 주었습니다.

사회자 : 이 반미투쟁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민중은 미국의 식민지예속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일어나 싸워야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광주학살을 단행한 군사독재집단과 그것을 막후조정한 미국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는 불굴의 의지를 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독재집단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을 전원 체포구속했고 살인적인 재판까지 벌였습니다. 특히 이 살인재판에 당시 법관의 감투를 썼던 이회창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매우 주목되는 것이 아닐까요.

김현규 : 그때 이회창은 대법원 상고심재판관으로 이 재판에 직접 관여했는데요. 이회창은 그때 김현장, 문부식, 김은숙 등 부미방사건관련자들에게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사형을 비롯한 극형과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더라도 그가 부산미문화원방화관련자들을 극형에 처하기 위해 얼마나 악질적으로 놀았는가 하는 걸 잘알 수 있습니다.

이회창은 그때 판결문에서 광주학살의 장본인인 미국을 비호두둔하고 북에 대해서는 가장 호전적이라느니 뭐니하는 험구를 늘어놓았는가 하면 애국청년들의 자의적인 소행을 북과 억지로 연결시키며 북을 이롭게 했다는 억지주장을 폈고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을 외면하고 그들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어 극형에 처했던 겁니다.

이것만봐도 이회창은 그때 벌써 극악한 파쇼분자, 친미사대매국노로써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당시에 부미방사건관련자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각계 민중의 목소리가 비상히 높았고 석방투쟁도 가열차게 벌어졌습니다. 또 변호인측에서는 그들이 젊은 나이인데 극형에 처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이회창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사형과 중형을 마구 선고했던 겁니다. 이건 그때 벌써 이회창이 친미군사독재집단에 법관의 감투를 쓰고 기생한 친미사대매국역적이라는 걸 웅변하고 있죠.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서 부당하게 옥고를 치루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자들이 지금은 대체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미방사건이 끝난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결코 우연한게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부미방사건처리를 주관하면서 열혈청년들과 민주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선고했던 이회창이 정계에서 용꿈을 꾸며 활개치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회창은 부미방사건처리에서 자기의 범죄를 가리우기 위해 비열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리를 맡았던 이회창에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한 언론사의 기자들이 문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새삼 과거 사건을 들출 필요가 무엇이냐, 기억나지 않는다하며 마치 치매증환자처럼 놀았다는 겁니다.

지금 각계 국민들속에서 부미방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게 대두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어떤 오그랑수로도 이회창은 결코 자기의 범죄행위를 가리울 수 없습니다.

지금 경향 각지에서 반미투쟁과 함께 반이회창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회창의 비도덕성과 저열성, 반민족성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각계 민중은 미국에 아부아첨하며 우리 민중에게 독재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온 이회창과 같은 매국역적을 정계에서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나가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상전의 힘을 빌어 대권을 쥘 야망을 꿈꾸고 있는 이회창은 지금 부시의 악의 축망발에 맞장구를 치며 민족반역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반민족, 반통일역적이 절대로 권좌에 앉지 못하게 해야하겠죠.

통일혁명당창당 준비위원회 결성일에 부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3일~15일

3월 15일은 통혁당(한민전의 전신)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지 38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우리들은 통혁당창당을 위해 바친 창당준비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한 전위투사들의 투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창당준비위원회결성, 그 뜻깊은 날이 있어 한국변혁운동은 강위력한 전위대오를 가지고 오늘과 같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은 애국적인 전위투사들이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로부터 38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통일혁명당 창당을 위한 투쟁의 그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1960년대 당시 이 땅에 조성된 정세는 반미, 반파쇼,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향도할 새로운 주체형의 당, 근로민중의 전위당의 창당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국강점으로 각계층 민중의 애국투쟁은 날이 갈수록 대중적인 투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갔으며 그것은 마침내 1960년 4.19민중봉기로 이승만독재정권을 매장하는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이같은 대중적인 투쟁은 근로민중의 전위조직의 통일적인 영도를 받지 못한 탓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없었고 결국 투쟁의 열매를 원수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민중이 오직 자기 전위조직의 영도밑에 투쟁을 벌여나갈때만이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때인 1961년 9월 애국적인 전위투사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광범위한 민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노동자, 농민의 독자적인 당을 창당해야 변혁운동이 승리할 수 있다고 하신 귀중한 가르치심을 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국변혁운동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전위당창당의 필요성과 그 실현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가르치심은 투쟁의 진로를 찾아 암중모색하던 애국적인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에게 당건설의 뚜렷한 방향과 변혁운동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때로부터 통일혁명당의 지도핵심들이었던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전위투사들은 위대한 주석님의 창당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투쟁속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사람들로 기층 당조직을 꾸리고 그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알차게 조직, 전개해 나갔습니다.

전위투사들은 걸음마다 적들의 폭압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넘고 넘으면서 창당의 조직사상적 준비와 대중적 지반을 축성해나갔으며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전위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 마침내 1964년 3월 15일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모처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루빨리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를 끝장내고 민족해방의 과제를 완수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성취할 것을 당의 투쟁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정치적 활동과 대중지도전술 등 14개 항목의 투쟁임무도 심의, 규정했고 김종태, 최영도동지를 비롯한 여러 동지들을 창당준비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종태동지

참으로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은 통혁당 창당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한 역사적인 전기로 됐습니다.

그후 창당준비위원회는 당의 지도핵심을 튼튼히 꾸리는 한편 서울시당위원회, 전라남도당위원회, 경상북도당위원회 등 지방당 조직들을 내오고 경향각지에서 창당의 조직사상적 준비를 가속화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저서들을 출판해서 산하조직들에 배포했고 또 당시의 당기관지로써 신문 ≪혁명전선≫과 잡지 ≪청맥≫을 발간, 배포하는 등 당원들과 근로민중을 의식화하는 작업을 줄기차게 벌여나갔습니다.

그리고 1964년의 3.24, 6.3투쟁과 8월 투쟁을 비롯한 대중투쟁에 적극 참가해 조직을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단련하고 확대강화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가열찬 투쟁의 불길속에서 마침내 1969년 8월 25일 통일혁명당은 자기의 역사적인 창당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통일혁명당의 창건으로 한국변혁운동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자기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민중은 비로소 자기의 지향과 의사의 체현자, 대변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말로 통혁당의 창건은 한국변혁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


재판정에 선 임자도 조직원들

계에로 승화시킨 역사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 땅의 애국민중과 더불어 우리 민중의 선봉에서 투쟁의 혈로를 함께 헤쳐 온 통일혁명당은 1985년 변천된 현실요구에 걸맞게 그 명칭을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으로 개칭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애국적 전위대로써의 역사적 중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통혁당 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38년간 한민전은 참으로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38년전 그날 통일혁명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던 전위투사들이 그처럼 바라던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은 오늘도 성취되지 못했고 미국의 식민지통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시미행정부의 출범이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매우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갈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해서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써 올해에 민족의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적 요청에 부응해서 한민전 성원들은 우리 민중의 철저한 대변자이고 절대적인 지지자인 한민전을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고 각계층 민중을 그 주위에 굳게 묶어 세워 자주, 민주, 통일의 성스러운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한민전 성원들이 자신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내외의 사상이론적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도핵심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고 대중과의 혈연적 유대를 강화해 한민전이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며 한민전의 지도밑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전이 어떤 역경이나 도전앞에서도 동요와 좌절, 비관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힘차게 전진하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애국적 전위대로써의 중임을 다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민전 창당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다바친 전위투사들, 그들의 염원을 이 땅에 꽃피우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더욱 힘차게 나설 민중여러분일줄 굳게 믿습니다.

외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6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외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자면 외세와 공조해서는 안됩니다. 외세는 우리 나라 분열의 장본인이며 조국통일의 최대의 방해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국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우리 나라 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이남땅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조국통일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이죠.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 6.15남북공동선언은 7천만 겨레와 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아직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행을 백방으로 방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용무력감축이니 미사일문제니 하면서 그 무슨 강경정책으로 이북을 압살해보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국은 지정학적 핵심지역인 한반도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면 저들의 세계지배전략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화해와 단합의 길로 들어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결과 전쟁의 불꽃을 튕기려 하고 있습니다.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발언도, 그의 서울행각도 미국의 이러한 속셈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을 희생시키려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으로 인하여 오늘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 엄중한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외세와 공조해서는 결코 조국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을 실현하자면 민족공조를 이룩해야합니다. 그것은 조국통일운동의 담당자가 우리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을 위한 것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할 당사자도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입니다. 민족내부문제는 그 내용과 성격이 어떠하든지간에 반드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로 하여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것도 우리 민족이고 통일문제에 철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통일된 조국에서 살게 될 당사자들도 다 다름아닌 우리 겨레입니다. 우리 민족만이 통일의 주인으로, 당사자로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민족공조로 조국통일을 이룩해야 할 근거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을 비롯한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추종하여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안보니 공조니 하면서 외세의존과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추에 용서못할 민족반역행위입니다.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이 외세와의 공조를 더 중시하며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걸고 이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무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엄중한 상태에 빠뜨렸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족내부의 반통일세력들은 이달에 들어와서도 이북을 겨냥하는 대규모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같은 반통일세력의 외세공조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6.15남북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있습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전후하여 전개된 각계 우리 민중의 전례없는 규모의 반미투쟁이 보여주듯이 외세와의 공조를 반대배격하고 우리 민족공조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외세공조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운동에 하나같이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외세의 이기적 목적에 의해 우리 민족, 우리 강토가 두 부분으로 동강나게 됐죠. 외세는 지금도 저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우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고 통일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세와의 공조를 운운하는 자들은 통일을 하지 않으려는 매국역적들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겁니다. 민족공조만이 통일의 참된 길임을 잊지 말고 민족대단결을 위해 모든 걸 다바쳐야 할줄 압니다.

꽃의 왕

누구나 다 보라고
흉모르고 보란듯 안고가네
세상 진귀한 보물처럼
두손에 높이 받들고 가네

해마다 꽃축제 열리는 중국 단동꽃집에서
내 고이 안고온 꽃무
2월의 하늘아래 붉게 피었네
아 – 태양의 꽃 **김정일**화

시원스럽고 황홀한 꽃송이
이글거리는 불덩이인가
우리 가슴 위인숭배열기로
세차게 끓게 하네

푸른 잎새와 억센 줄기
백두장군 기상과 담력을 이야기하고
그 닮은 꽃향기 애족애민의 광폭정치 펼치시는
장군님사랑 전하여주네

누구나 한번 보면 마음이 커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꽃
금시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나올 듯
짙은 정서를 안겨주는 꽃

그래서 지나는 길손들 눈길 떼지 못하리
따라선 젊은이 속삭이는 소리
≪과시 **김정일**화는 꽃의 왕이야!≫
암 그렇구 말구
세계 원예박람회에서 최고상을 받은 꽃
절세위인 존함 모시어
온 사람 사랑하는 태양화

내 마음 하늘가에
언제나 이것을 받들고 갈꺼야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통일아침 여시는
장군님 우러러 이남 민중 살꺼야

오! 서울장안 밝히며 불타는 **김정일**화
이남 민중 우러르는 이상의 꽃
장군님 태양상 그대로 닮은
천세의 명화야 이 세상 꽃의 왕이야

주체91 3월 11일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산하 공공연맹은 10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전소매각반대 연대집회를 갖고 2차 연대총파업돌입을 결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여성노동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부인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것을 정부과 사용자측에 촉구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8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해 격문을 냈습니다.

전국대학생기행연합산하 충청기행연합이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자들의 석방을 요구해 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전투기도입을 반대하는 농성과 시위투쟁이 6일 국방부청사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나라당 이부영부총재가 최근 당내분사태를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이회창총재를 포함한 총재단사퇴를 촉구해 당내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내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부영부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소속 의원들이 이회장을 포함한 총재단사퇴와 사태수습채택 등을 당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아 당을 망쳐먹은 이회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경찰이 서울 조계사에 진입해 농성중이던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연행해가는 불법무도한 폭거를 자행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중앙위원회 8기 1차 회의가 지난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각지의 한통련 중앙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주체91 3월 1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3월 11일 조선인민군 제319군부대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각계 민중들속에서 반미반부시투쟁이 힘차게 벌어진 것과 관련해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대표는 각계 민중들이 부시방한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벌인 이번 투쟁은 전례없는 반미성전이였다고 지적하고 이로인해 불청객으로 기어든 부시는 분노한 민중의 대중적 항거가 두려워 3중 4중의 경찰병력에 둘러싸인채 고독한 일정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쟁에서 주목되는 점은 그것이 단순한 반미항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민족의 단합과 공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발전했다는데 있으며 또 그것이 광범위한 대중이 동참한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가열차게 전개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투쟁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가져온 고귀한 결실이라며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은 이남 민중의 의식영역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남이 지금까지는 미국의 천국이였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세상에 다시없는 미국의 지옥으로 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제 더이상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식민지지배의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월 8일 국제부인의 날을 맞아 국내 여성노동단체들이 영세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어대 총학생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7일 논평을 발표해 북미평화협정체결과 6.15공동선언실현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이북과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 나라에 대해 핵공격준비를 지시했다는 미국방부의 보고서에 대해 각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미국이 이북 등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는 미국방부의 비밀보고서는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만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핵공격계획은 인류를 핵전쟁의 희생물로 지구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려는 매우 위험천만한 광신적인 발상이다. 미국이 이북 등 특정한 나라들에 핵공격을 가한다면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번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며 미국도 핵공격을 받아 잿더미로 되고 말것이다. 이는 말그대로 자살행위이다. 인류를 멸살시키려는 무서운 범죄행위를 저지르려는 부시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미친개는 때려잡아야 한다. 핵광신자 부시는 마땅히 제거돼야한다.≫

또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시가 이북에 대해 핵공격을 가할 준비를 지시했다는 것은 우리 남북 민중 전체에 대한 핵공격을 하려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핵전쟁에 대비한 비밀정부를 구성해 가동시키는 한편 비핵국가들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한 가운데 특정한 나라들을 지명하면서 핵공격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어 전방에까지 나가 돌아친 것이라든지 이달말에 두개의 한미합동전쟁연습을 통합해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매우 심상치 않은 군사적 움직임이다. 그것이 그대로 핵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본다. 부시의 이같은 광신적인 전쟁책동으로 인해 이 땅에는 지금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전인류를 멸살시키려는 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기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한다.≫

주체91 3월 13일

한민족아리랑연합회의 김성준씨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얼마전 동료들에게 평양에서 개막되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사상예술성에서나 규모에서나 손색없는 최고의 걸작으로 칭송되어왔다. 이번 아리랑공연에도 10만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해서 온갖 조화를 다 부린다고 하니 상상만해도 황홀감을 금할 수 없다. 창조와 예술의 천재이신 **김정일**장군

님을 모셨기에 이북은 세계적인 걸작품을 펴낼 수 있는 예술의 왕국으로 찬양되고 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함께 모여 통일아리랑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미국이 이북 등 7개 나라에 대해 핵무기사용계획을 마련했다는 것과 관련해 소파개정국민행동 회원 20여명은 12일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집회를 갖고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총련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한미합동군사훈련들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총련은 발전산업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해 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극우 파시스트세력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미제의 세균전, 화학전 만행을 폭로하는 공청회가 12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91 3월 14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3월 13일 조선인민군 제639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미군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12일 제30차 미국대사관 반미연대집회를 갖고 부시정권의 핵무기사용계획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국연합이 11일 미국은 ≪오만방자한 핵전쟁계획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회당,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이 미국전투기를 끌어들이려는 군당국을 규탄해 8일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단체관계자들과 남총련, 연세대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4일 황혜로학우의 출소를 계기로 광주교도소 앞에서 석방요구대회를 가졌습니다.

민가협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고할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10여개 불교단체들은 12일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일 발전노조원 검거를 위한 경찰병력의 대웅전 진입에 대한 경찰청장의 공식사과와 현장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주체91 3월 15일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통일운동가의 모임이 3월 10일 시내 모처에서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의지와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갈 결의를 밝혔습니다.

조직책 강모교수의 기조발언에 이어 여러 회원들이 토론한 토론들에서는 이 땅에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간의 관계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하여 경색국면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준엄한 현실을 심중하게 검토분석하고 통일운동을 반미운동과 밀착시켜 벌여나갈데 대해 피력했습니다.

통일운동가들은 특히 **김정일**장군님의 자주적 통일방략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은 새 세기 조국통일의 유일한 이정표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통일의 태양, 통일의 장군으로 높이 칭송했습니다.

모임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맞으며 이북에서 제안한 3대 호소, 3대 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이기 위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미국의 무모한 핵전쟁계획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한나라당 이회창이 일본에 가서 이북을 걸고 드는 망언을 또다시 한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산업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 항의했습니다.

각계에서 한나라당 이회창의 일본행각을 친일매국행각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친미행각을 한데 이어 이번에는 친일행각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지난번 미국행각시 미국의 강경보수파들을 찾아다니면서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어줄 것과 대북강경정책을 계속 실시해줄 것을 손발이 닳도록 빌고 다니면서 각계의 규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국민들은 이회창을 친미사대주의분자, 매국역적이라고 낙인찍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이번에 일본에 날아가 북의 대량살상무기니 미사일문제니 하면서 또다시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역적행위를 감행했다. 지금 일본놈들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는 때에 이회창이 일본상전들을 찾아가 한일공조를 역설한 것은 일본의 재침기도를 부추겨 한국을 미일의 이중 식민지로 만들려는 용납못할 매족배족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회창은 미일의 **자이다. 이회창은 미일상전들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감투를 써보려하지만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동이다. 민족반역아를 대통령에 뽑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이회창은 어리석은 망상을 버리고 정계에서 하루빨리 퇴진해야한다.≫

일제시기에 반일운동을 했다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한 노인은 이회창의 일본행각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일족은 원래 애비부터 일제의 검찰기관에서 일하면서 숱한 독립운동가를 밀고해 죽게 한 친일파였다. 친일의 혹이 제기돼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회창이 숙적인 일본을 찾아간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전민족이 외세를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자고 하는 때에 이회창이 미일상전들을 찾아다니며 한미일공조를 떠들고 나선 것이다. 이회창은 외세의 침략을 불러오는 앞잡이이다. 역적은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마땅히 처단해야한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14일 미군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대규모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조선인민군 이두익차수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14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4일 재일본조선청년대표단 성원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와 같은 핵공격계획을 갖고 있으며 공격대상에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공동의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해 평양에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창립 25돌기념집회가 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북 미술작품전이 조선미술가협회의 주최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의 뉴져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91 3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재야인사 한성호씨가 광화문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이북 **TV**프로그램을 본 소감을 묻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 **TV**를 볼때마다 제일 감명깊은 것은 매 프로마다에 자기 영도자에 대한 민중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숭배심이 대하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다. 이것은 지구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특출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
한씨는 계속해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중사랑의 정치에 대해 강조한 다음 미국이 제아무리 대북강경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로 똘똘 뭉친 이북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나는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을 충성으로 우러러 따르며 받들자고 말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북한산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다짐 제1차 등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14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오는 23일까지 발전노사와의 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길에서 열렸습니다.

한총련은 미국의 핵무기사용계획을 담은 비밀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11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미국언론에 공개된 미국방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규탄했습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은 13일 일제하에서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당국이 단국대학생들을 보안법에 걸어 연행구속한 것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낙연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재산공개에서 세비와 국민연금을 넘겨 8600만원이 늘었다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치자금에 대한 이회창총재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덕룡의원과 홍사덕의원은 14일 최근 일련의 혼란스러운 사태의 책임은 이회창에게 있다면서 지금은 이총재와 만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대규모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려는 미국과 군호전집단을 규탄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15일 이북을 방문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명예이사장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반도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토론회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창립 25돌기념 집회,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조선의 자주적 통일에 관한 토론회가 창립 25돌을 맞이하는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의 주체로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체코공산당은 2월 27일 성명을 발표해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규탄했습니다.

멕시코 인민사회당은 2월 24일 멕시코 민중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해 부시의 악의 축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주체91 3월 17일

한강독극물방류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 영안실 소장인 피고인 맥팔랜드에 대한 신병인도요청을 주한미군측이 또다시 거부해 각계의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5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부동산투기의혹과 미국 로스엔젤레스 초호화주택구입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한나라당 부총재단이 3월 14일 충북지사를 찾아가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라고 권유한데 대해 정당사에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행동이라며 이회창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종필은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앞으로 이런 짓이 되풀이되면 맨발 벗고 있는 것 다 벗어던지고라도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지사에게 한나라당입장을 권유한 것은 공갈협박이며 이회창과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태국정부 정부수상실 청년사업담당상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의 석대를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중국 요녕성 국제우호연락회, 인도 대외정책연구소와 인도주체사상연구회, 전인도조선친선협회에서 친선모임과 기념집회, 강연, 영화감상회, 사진전이 2월 21일부터 지난 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됐습니다.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불가리아위원회 합동전원회의가 2월 28일 소피아에서 진행됐습니다.